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이재명 시장 “헬조선, 꿈이 사라지고 있다”

하버드 강연, 자유와 경쟁의 지나친 강조
너무 적은 소수가 너무 많은 기회 독점 초래
다음 세대가 더 나빠질 것이라 믿는 심각한 상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이 위험하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하버드 강연의 서두를 뒀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23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법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시장은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빠질 거라고 믿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새로운 세대는 늘 기성세대보다 기회가 많았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 이게 역전됐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 “가장 기본적인 종족 보존의 본능을 포기할 정도다. 이대로 가면 2018년이면 총인구가 줄어들고 2300년대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소수에 의한 기회의 독점 때문이라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비록 경제성장이 저하되기는 했지만 매년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회의 총 양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너무 적은 소수에게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정치와 제도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회와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회가 발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민주주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에 유난히 자유와 경쟁만이 강조되어 버렸다. 이 시장은 “언제부터가 세계는 경쟁만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다”며 지금 우리는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된 사회의 역기능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미국의 불평등 버니 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지난 23일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평, 정의, 평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더스의 열풍 등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이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는 그는 한국의 경우 정치와 언론이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혼란케 해서 소수 독점체제를 유지해 기득권을 공고히 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의 난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며 국민의 투표라는 권리행사이다. 결국 언론에 의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세뇌화 되어 있는 유권자들을 바꿔야만 된다는 것이

▶▶2면으로 계속



관권기5면 참조
재외 국민 투표 3월30일부터 시작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4월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170
대한항공
뉴욕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1,170는 대한항공 요금으로 국내선 연결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시에 2016년 3월 31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m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국민이 거지냐? 공짜 아니라 세금 돌려주는 것”

이재명 시장과의 인터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3일 저녁 하버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여러 분야에 자신의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정치인이 모든 것(성남 FC 축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아니냐”, “난 포퓰리스트 맞다”,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다” 등의 흥미로운 발언도 쏟아낸 이 시장은 작은 정치가 아닌 큰 정치적 활용즉 시민적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시민에게도 도움되고 나에게도 득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면도 보였다.

북한 관련 워싱턴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채널 A와 동아일보가 자신을 ‘북한을 편들었다’며 ‘빨갱이’로 몰고 있다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시장과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
미정부 하위실무자들은 대북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하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 등은 대북 제재를 주장한다는 게 전문가

의 지적이다. 워싱턴 맨스필드 재단에서 강연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

▶매스필드 재단은 자누치 라는 사람은 제재보다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 입장인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화와 제재중 어떤 것이 일방적으로 좋고 나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 두가지 적절히 배합하기도 하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가기도 하고 그렇다. 지금은 제재를 해놓고 기다리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대북 강경 대한민국 정책으로 인해 북핵 위기가 심화된 단계가 아니냐 따라서 제재보다는 대화를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맨스필드 재단의 입장이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강경화 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때리면 시원하다. 정부가 북한에 강경책을 취하는 것도 지지층에는 시원하다.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집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무자들은 실효성을 추구하고 정치인들은 강경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현실이다.

북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이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좀더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이지 적(북한)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북

한에 좀 유리하게 이야기하면 중복이라 하고 무조건 때리면 좋아한다. (남북한은) 독립된 국가들이고 상호 대립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 이익을 또는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 관계가 아니다. 비슷하게 손해보고 비슷하게 이익을 보며 서로 윈윈해야 한다. 각자 인정한다면 손해를 적게하고 이익을 서로 얻자고 하는 게 대화고 협상이다.

국민이 거지냐?

성남시의 청년 수당은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정책이다. 사실상 안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1년 1백만원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받지 않나. 성남 FC 축구단 등 다른 운영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게 낫지 않는가?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어디에 쓸지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수당에 대해 벌금 때린다고 해서 받은 남겨놓고 12만 5천원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는 이 돈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율이 공식적으로 12.5%라고 하는데 비공식



워싱턴 한인회와 맨스필드 재단에서의 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 시장은 23일 보스톤을 찾았다

적으로는 30%다. 취업포기자, 군대 대기자, 졸업 않고 버티는 사람들 모두가 실업자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의 20%가 2년짜리 이하의 단기계약자다. 청년들이 완전 망가졌다. 알바하면 시간당 3천원 주고 이렇다. 그런 청년들에게는 이것도 큰돈이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다. 10여만원이 없어서 세모너가 자살하지 않았다. 100만원으로 먹고사는 청년도 있다. 또한 이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

포퓰리스트라고 인정한다. 포퓰리즘은 언어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받

치는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뀌었다. 해서는 안될 일인데 정치인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해서는 안될 일이나. 이것은 공짜라고 하는데, 국민이 거지냐.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이 뽑은 대리인, 머슴들이 질서유지와 안전보장에 최대한 쓰고 돌려주라고 헌법에 쓰여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2항. 복지 증진을 위해 의무가 있다고 써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청중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보스턴 공연

세계적 피아니스트 길 걷는 유망주
주요 언론들 찰리의 연주 극찬
한국계 혼혈 스스로 오철수 한국명 지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욕 타임스부터 “입이 벌어진만큼 놀라운 피아노 테크닉”이란 평가를 받은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28, 한국명 오철수)가 이번 주 일요일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보스턴 이사벨라 가드너 뮤지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27일 콘서트 이후에는 5월 18, 19일 양일간 보스턴팝스와 협연한다.

한국계 혼혈인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는 하버드와 NEC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5년학/석사프로그램에 최초로 입학해 하버드에서 의대 예비과정인 프리메드(Pre-Med)와 경제학을 전공했다. NEC에서는 변화경 교수의 사사를 받았으며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다. 고연봉의 월가에 취직하기도 했으나 피아노의 길을 걸었다.

2014년 음악적 대가의 잠재성이 있는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에이버리 피셔 그랜트(2014 Avery Fisher Career Grant)를 수상했다. 이 상을 받은

수상자는 최고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조수아 벨, 장영주, 클라리넷니스트 앤소니 맥길 등 대가들이다. 2010년에는 길모어 영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 그의 첫 상업음반 Vivache는 세계적으로 수천장이 팔렸다.

요요마와 하버드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후 5번이나 협연했으며 조수아 벨, 보컬리스트 바비 맥페린 등과 협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시대의 가장 천재적인 뮤지션중의 한명이며 눈부시게 천부적인 건반 친화력이 있다”고 평했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에서 찰리 올브라이트를 가르쳤던 변화경 교수는 “베토벤처럼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다. 청중하고 교감을 정말정말 잘 하는 피아니스트로 청중을 사로잡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특히 관중들에게 원하는 음계를 이야기 하라고해 몇 개의 음계를 이야기 하면 그것만으로 즉흥연주를 해 관중들을 흡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28, 한국명 오철수)가 이번 주 일요일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보스턴 이사벨라 가드너 뮤지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변 교수는 또 “누가 들어도 찰스 올프라이트의 연주라는 색깔이 뚜렷하다. 88건반이 각각의 색깔을 지닌다면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다. 최근 피아니스트들은 대가들을 모방하고 안전 위주로 연주하지만 찰리는 자기만의 독창성으로 연주하는 연주가”라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정훈 박사는 “요즘에는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냥 지나치는데 찰리 올브라이트는 천재중의 천재다. 정말 환상적이다. 진화하는 것이 느껴지는 피아니스트”라고 극찬했다.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살 때 스스로 반짝

반짝 작은 별을 칠 정도의 천재성을 타고 태어났다.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한국 또한 아주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도 한국어 공부차 꼭 챙겨본다.

티켓은 성인이 27불이며 시니어 24불, 7-17세 학생은 12불이다.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티켓 웹사이트 :

<http://www.gardnermuseum.org/calendar/events/6923>

찰리 올브라이트(오철수) 웹사이트:

<http://www.charliealbright.com>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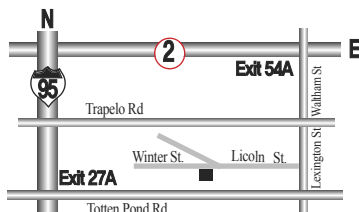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한국생활 불편 줄인다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위해 입국시 주민증 발급
부동산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
6월 말 불편한 거소증 폐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시 필요한 국내 거소신고제도의 효력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대체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도 이를 받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증을 발급했으나 해외 영주권자들은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한국을 방문해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재외국민 담당 원유철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영

주권자들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인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란 직인이 표시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보스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영주권자가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거

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신분세탁이나 세금회피 등의 부작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영주권자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행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b@bostonkorea.com

뉴욕시, CFDA와 유료 인턴십 시행

(LA = 헬월드경제) 이경준 기자 = 미국의 패션 시장을 LA와 함께 양분하고 있는 뉴욕시가 패션디자이너협회(CFDA)와 고등학생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유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디자인과 브랜드 위주의 뉴욕과 달리 생산과 유통에 집중돼 있는 LA지역과 크게 대비 되는 모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뉴욕 시장실의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와 뉴욕시경제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NYC 패션 포워드(NYC Fashion Forward)란 이름으로 올 여름 방학에 진행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에는 'Coach', 'J. Crew', 'Kate Spade' 등 중고가 유명 브랜드부터 대중적인 브랜드까지 총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 100명은 30시간 가량 사전 교육을 거쳐 패션 및 주얼리 디자인, 홍보, 제조 등 패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미리 체험 할 수 있다.

오는 7월 부터 6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주당 25시간 가




량 진행되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전체 100개의 일자리 중 60명분은 뉴욕시 경제 개발 공사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며 40개 일자리는 뉴욕시장 기금과 디자이너협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뉴욕시측은 "전세계 3대 패션 메카인 뉴욕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결국 우수한 인력 확보에 있다" 라며 "이번 NYC 패션 포워드는 단지 단시간의 경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성을 갖춘 성실한 예비 패션업계 종사자를 길러내는 인재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라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솨용치는 활력과 건강,
복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질랜드 농림부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면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용량정 오일정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포우후우 다들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포도 배송 해드립니다.



재외국민 20대 총선 투표 30일부터 6일간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율은 증가 반면 보스톤 유권자 등록율은 오히려 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는 4월 13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주 보스톤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유권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 1399명은 30일 수요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월요일까지 총 6일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아닌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들의 경우 반드시 여권과 영주권을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에만 투표가 가능하다.

남궁연 선거관리위원장은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총영사관 산하 선거권자 수 16,113명 중 1,399명이 등록하여 8.7%의 등록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스톤총영사관 산하 유권자는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12,891명에 비해 3천 2백여명 증가한 반면 등록자는 당시 1,986(15%)명에 비해 저조하다.

남선거위원장은 이 같은 등록율 저조에 대해 “유권자 수가 3만명이 미달

된 보스톤과 하와이 영사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파견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대 선거 당시에는 선관위 소속이던 서양호 영사가 파견돼 활발한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인 것이 높은 등록율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는 19대 총선과 달리 인터넷 유권자 등록의 길까지 열어놓은 상태였지만 19대의 절반정도의 등록율에 그쳤다.

안병학 전 한인회장은 “보스톤 유권자 등록율이 반토막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인들의 선거참여 독려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 등 다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느헤미야 평신도 신학원 봄학기 개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가 운영하는 평신도신학원이 2016년 봄학기를 시작한다. 4학기째를 맞이하는 BNI 평신도신학원은 그동안 평신도들을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양질의 신학 과목들을 훌륭한 강사진들을 통해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봄학기에도 월요일 저녁 브루클라인에서 모이는 Central Class와 레딩에서 모이는 화요일 저녁 North Class 이렇게 두 곳에서 모두 네 과목이 개설되어진다.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모이는 월요일 개설 과목은 김영호 목사의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하는 신앙생활”(4월 4일 시작)과 장성철 박사의 “과학과 신앙: 적인가? 아군인가?”(5월 9일 시작)이다.

레딩에 위치한 나사렛사람의교회에서의 화요일 과목은 이영길 목

사와 유경렬 목사가 공동으로 가르치는 “이민신학 알아보기”(4월 12일 개강)와 김이근 목사의 “한 눈에 보는 마태복음”(5월 17일 개강)이다. 각 과목은 5주 동안 지속되며 등록은 온라인(www.bostoni.org)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날 수업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평신도신학원 초기 개설 과목들이 구약, 신약, 예배학, 선교학 등의 개론 과목들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최근에는 성경의 더 작은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또 과학과 이민신학등의 전문적이며 실제적인 영역이 개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등록과 과목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그 밖에 BNI사역에 대한 안내는 위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BNI 사무총장 김건철 목사에게 문의(347-551-4152)할 수도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미국에서 이런 국악축제는 없었다

브랜다이스 국악축제 대성황
일주일 내 대학가에 국악 강의와 연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고취
관객과 하나 되어 큰 환호 속에 마무리된 주말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MusicUnitesUs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주일간의 보스톤 대학가 2016 국악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한국에서 초청된 5명의 국악 명인들(이태백, 이지영, 원완철, 임현빈, 이석주)과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힐러리 핀첩-성 교수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의 8번의 강자와 멘델 센터에서의 비공식 연주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웰슬리 대학교에서의 가야금 신곡 콘서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의 세미나와 즉흥연주, 하버드 신학대학교 연주, 월담 고등학교 연주 등 캠퍼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힐러리 핀첩-성 교수의 해박한 강의와 국악 명인들의 원숙한 연주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의마다 작게는 30명 크게는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무용, 인류학, 국제학 등의 여러 강의에 참여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다.

월담 고등학교 연주회에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좋다' '얼씨구' 등 판소리의 추임새를 따라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장내를 흔들었다. 120명의 관객이 참여한 웰슬리 대학교 가야금 현대곡 발표회에서는 보스톤 유학 중인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씨와 서울대학교 이지영 교수가 제러드 레드몬드, 김대성, 도날드 위맥 등의 젊은 작곡가들이 만든 가야금 현대곡들을 연주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주말의 콘서트는 입추의 여지없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 인

해 더욱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19일 토요일에는 민속악 전 분야를 섭렵한 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태백 교수가 깊이 있는 소리로 애절하면서도 격정적인 아쟁 산조를 연주했다. 중견 소리꾼 임현빈씨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가 눈뜨는 대목' 을 시원, 통쾌하면서도 구수한 소리로 불러 관객을 사로잡았다. 원완철씨의 대금 솔로 '청성곡', 찻김곳에 태평소 시나위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석주씨의 뛰어난 기교의 태평소 가락과 어우러진 모든 출연자의 앙상블은 모든 관객을 절로 흥겹게 만들었던 클라이막스였다.

20일 토요일에는 이지영 교수의 가야금 산조가 다채로운 농음과 고른 음의 연주로 관객을 섬세하게 사로잡았으며, 흥보가의 신나는 '박을 타는 대목' 은 이민 생활에 지친 한국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앵콜로 임현빈씨가 부르는 진도아리랑을 관중도 함께 부르며 화답했고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계속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요 기획자이며 국악애호가인 브랜다이스 대학교 MusicUnitesUs의 주디스 아이젠버그 교수는 센터 스테이지 코리아, 코리아 아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단체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이젠버그 교수는 특히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과 김유경 디렉터의 전폭적인 헌신과 도움으로 이번 행사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했다.

한미예술협회 홍보를 맡고 있는 소프라노 우상원 씨는 "올해의 국악축제는 한국을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힘



중견 소리꾼 임현빈씨가 판소리 심청가중 '심봉사가 눈뜨는 대목' 을 불렀다 (사진 = Clara HY Lee)



(좌)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고 있는 서울대 이지영 교수 (우) 애절하면서도 격렬한 아쟁산조를 연주한 이태백 교수 (사진 = Clara HY Lee)



(좌)찻김곳 공연 (우)다양한 관중들이 20일 브랜다이스 대학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에서 열린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 = Clara HY Lee)



을 합쳐 여러 학교의 캠퍼스와 공연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청중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들려주고 소통하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밑거름으로 한국을 알리는 의미있는 활동들이 보스톤에서 계속 되기를 기대해본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만찬 9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는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 (Elks Club)에서 차세대 정치 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이날 만찬에는 미 법무부 연방검사실 변호사이자 조지타운 법대 외래교수로 재직중인 고원영(Steven Arigg Koh) 씨가 기조연사로 참여해 연설한다. 소프라노 나윤선 씨가 가곡 그리운 금강산과 아리아 디히 토레 할레(Dich Teure Halle)를 연주한다. 박찬희씨가 사사한 한국춤 그룹의 한국무용 공연이 이어진다.

시민협회는 올해 대학생 3명, 고등학생 7명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의 정치인턴을 선발했다. 이들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 사무실, 테키 쉐 주-하원의원 사무실, 르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 배치되어 방학동안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시민협회는 선발되어 여름방학동안 근무하는 인턴들에게 소정의 장학

금을 전달해 왔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이 정치인턴 사업을 통해 시민협회는 총 71명의 인턴을 배출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근 이사장(617-799-7033) 및 임균택 사무차장 (kyuntaek001@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시민협회의 연중행사인 정치모금 만찬 이번 18회 행사에 부디 참석해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든든한 후원 의지와 성원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9/16,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기조연사 고원영 연방검사는
고원영 변호사는 워싱턴 DC 소재

미국국제법협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에서 Senior Fellow와 임시 법률편집인으로 일했다. 이 ASIL은 미국 내 국제법 학자 및 변호사를 위한 지도적인 학자들의 모임이다.

ASIL 이전 고변호사는 3년간 네덜란드와 헤이그 소재 두곳의 국제형사법원에서 국제법 경험을 쌓았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상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라도반 가라지치의 전쟁범죄, 학살, 인류에대한 범죄 등 혐의 재판에서 제3 재판실 부-법률관으로서 활약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발달 심리학을 전공하고 코넬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대 졸업 후 미연방 제 5 순회 고등법원 캐롤린 더닌 킹 판사 밑에서 법률 서기로 일했다.

코넬법대동문들은 그를 “타임 잡지 커버에 가장 나올것 같은 동문”으로 뽑아주기도 했다. 하버드 크립슨은 2011년 “최고를 향하고 있는 동문 15인” 중의 한명으로 선정했다.

hsb@bostonkorea.com

한국사회의 난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며 국민의 투표라는 권리행사

▶▶1면에 이어서

다. 그는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며 정보 전달을 일부 언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실 전달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상대방의 판단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다 보면 스스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7000여억 적자이던 성남시의 재정을 정상화 했으며 무상급식, 청년수당, 산후조리원 등의 3대복지를 실현했다. 소년노동자로 일하다 산재사고를 겪어 장애인 이 됐다. 고입, 대입 검정고시, 중앙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관검사 발령을 거부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그는 시민운동가로 시립의료원 설립을 등을 하다 구속수배를 당했었다.

이재명 시장은 기초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후보군에 진입했다. 비록 지지율은 타 후보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지지층으로부터 팬덤을 형성해 가며 차기 대권 후보 중의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연 후 보스톤대학(BU)메디컬스쿨에 근무하는 김지연 씨는 “(이재명 시장의 강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다만 일부 발언들은 좀 더 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생각보다 적은 약 40-50여명의 한인들만 참여했다.

성남시를 알리고자 미국을 순방 중이던 이재명 시장은 23일 강연 후 24일 보스톤시 마틴 월시 시장과 면담을 가진 후 보스톤을 떠났다.

editor@bostonkorea.com

콩코드 리뷰 여름 라이팅 캠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역사논문을 쓰는 계간지 콩코드 리뷰가 운영하는 서머라이팅프로그램이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웰슬리 소재 뱍스 칼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올해 9월에 8학년이 되는 학생들 이상이다. 학생과 교사 비율 5:1로 진행되며 데이 프로그램은 \$3000, 보딩 프로그램은 \$4500이다.

등록시에는 프로그램전과제

(Pre-program assignment)가 주어지며 프로그램 2주동안에는 리서치와 라이팅에 집중하게 된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는 초고를 완성하게 된다.

콩코드 리뷰 서머 라이팅 프로그램은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프로그램신청은http://tcr.org/summer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안내는 tcrsummer@sslgroup.org 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5년 개최된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 만찬 모습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서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초청된 한석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거대한 설치작품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을 선보인다

한석현 작가 작품 보스턴미술관(MFA) 전시

2016년 4월 3일 7월 17일
메가시티 아시아 전시회에 참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석현 작가가 참여하는 “메가 시티 아시아” 전시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린다. 베이징, 상하이, 뭄바이, 뉴델리, 서울과 같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를 일컫는 메가시티를 거점으로 작업하는 아시아 작가 11명을 초청해 기획된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아이 웨이웨이, 수보드 굽타 등 아시아 스타 작가들의 조각과 설치 작업들이 함께 전시된다.

서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초청된 한석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거대한 설치작품 슈퍼내추럴(Super-

Natural)을 선보인다. SuperNatural은 초록빛으로 포장된 갖가지 소비재들을 쌓아 만든 인공 풍경이다.

이 설치의 소주병에서 비료봉투, 세제 패키징에 이르기까지, 녹색이 친환경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여지게 된 오늘날의 소비자의 관심을 지적하고 인공적으로 모방한 초록색 대량 생산 물속에서 자연의 안식을 찾는 도시인의 심리적 단면을 드러내 “Green현상”의 양면성을 제시한다.

한석현 작가는 “어릴 적부터 두 눈에 꼭 들어왔던 초록색의 의미가 친환경적이고 순수한 자연 본연의 표상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초록색을 보는 시선이 남들하고 달랐다”면서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한석현 작가의 SuperNatural을 위해 보스턴 시민들의 초록 플라스틱 물품 기부 받았었다. 시민들의 기부로 완성된 이번 작

업은 각기 다른 두 도시인 서울과 보스턴이 함께 참여하는 작업이 됐다.

지난 십여년간 한 작가는, 농산물 의 신선도를 과장하는 현대의 유통 및 소매 환경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발전시켜왔다. 그의 대표작은 설치물, ReverseRebirth(2011~) 프로젝트이다. 재활용되지 않는 목재로 나무의 형상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묘목을 심는 설치 프로젝트다.

한석현 작가는 1975년 한국출생으로 미술세계에서 주최하는 제 11회 뉴프론티어 공모전 대상(2011)을 거머쥐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북서울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토탈 미술관 등 국내외의 우수 미술관들에서 단체/개인전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이끌어 왔다. 한석현은 2016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선정한 유일한 베를린 베타니안 레지던시 참여 작가이다.

hsb@bostonkorea.com



BU의 한국학생회가 오는 4월 2일, BU의 Tsai 퍼포먼스홀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사진은 작년 컬처쇼 "Doctor Nugu?" 공연 중에서 (BU KSA 제공)

BU KSA 컬처쇼, 올해는 어떤 주제로 펼쳐질까?

ABC 인기프로그램 The Bachelor 컨셉 전통공연과 현대문화 선보일 예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매년 봄, 이색적인 테마를 주제로 컬처쇼를 만들어온 보스턴 대학(Boston University) 한국학생회(Korean Students Association, 이하 BU KSA)가 올해도 색다른 테마로 정기공연을 준비한다.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BU의 Tsai 퍼포먼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컬처쇼는 ABC에서 방영하는 인기 프로그램 “The Bachelor”를 주제로 하고 있다. 2002년 3월 방송되어 2016년 현재까지 20시즌을 맞이한 The Bachelor는 남성 1명과 여성 25명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데이트 프로그램이다. BU KSA는 이 방송 포맷을 차용하여 데이트 과정에서 한국인 The Bachelor와 여성출연자가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이야기로 꾸며진다.

1시간 30분으로 짜인 이번 공연에서는 부채춤이나 탈춤과 같은 전통 문화 소개를 비롯하여 K-Pop을 결집한 현대무용과 난타공연, 패션

쇼 등의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컬처쇼를 위해 50여명의 BU KSA학생들은 한 달 전부터 연습에 매진 해 왔으며, 각 막당 두세 명의 운영진들이 이들의 연습을 돕고 있다.

공연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경우 5불이며 당일 행사장에서 구입할 시에는 7불 (Cash only)이다. BU KSA의 홍보 담당인 노승연씨는 “KSA의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벤트 관련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10여분의 홍보비디오도 많이 즐겨주길 부탁했다.

공연일시: 4월 2일 오후 4시
공연장소: BU Tsai performance center, 685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문의사항: 페이스북 “BU KSA Culture Show: The Bachelor '16”, 노승연 (BU KSA 홍보담당 /sro18@bu.edu)
itshunne@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Equal Housing Opportunity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아이섹 보스턴 지부장 발리지 스리니바산씨 인터뷰

대학생 해외 진출, 우리가 돕겠습니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아이섹이 없었더라면 하버드에 오지 못했을거예요”. 하버드 인턴과정의 금혜원씨는 자신의 해외진출을 아이섹이라는 단체의 덕분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생활은 제 인생 가장 큰 경험이에요’, 본지 3월 4일 소개) 그는 한국에서 아이섹 고려대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해외진출에 눈을 돌렸고, 또 아이섹을 통해 하버드에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대학생들의 기본이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급지는 우리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청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본지는 추가적으로 아이섹(AIESEC)의 보스턴 지부장과 인터뷰 기회를 가졌다. 인도 유학생 출신인 바라지 스리니바산씨는 인도에서 대학을 하며 급 씨와 마찬가지로 아이섹의 인도지부 운영진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노스이스턴에서 정보보호학 대학원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각하여 이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동참했던 많은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해외교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이섹의 각 지역/대학 지부는 기업이나 봉사활동이 필요한 단체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관계 협약이 이루어지면 아이섹에 공고를 띄우는데, 이에 관심 있는 다른 지역의 아이섹 멤버들이 공고를 띄운 지부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개인과 기업을 맺어주는 업무로 이루어진다. 인턴업무의 경우 유급 인턴 업무를 우선 목표로 발굴하게 되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무급이다. 인턴계약이 이루어지면 참가자는 아이섹에 \$700의 중계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아이섹에서 개인에게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500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턴과는 달리 식사와 숙박이 제공된다.



아이섹 보스턴 지부장 스리니바산씨(왼쪽에서 네번째)와 아이섹 홍보부 임원진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아이섹 홍보부 임원진이 보스턴 지부장 스리니바산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아이섹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섹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6개국에 지부를 두고 10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섹은 주로 해외인턴업무와 해외봉사활동을 연결하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아이섹 보스턴 지부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아이섹 보스턴지부는 노스이스턴 대학, 서픽대학, 보스턴대학 (BU), UMass 로웰, UMass 보스턴, 애머슨 컬리지, 벙커힐 컬리지 등의 대학생 연합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스턴 지부는 창립된 지 아직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모자란 점도 많고, 발전할 수 있는 범위도 무궁무진하다. 다른 지부의 경우에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나 보스턴 지부는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연합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특이한 케이스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목표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아이섹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당시 아이섹을 설립한 사람들은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이 모국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

보스턴 지부장으로서 2016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보스턴 지부는 아직 신생단계이고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보스턴 지부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금혜원 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처음으로 받은 학생인지만 대처가 많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이를 경험삼아 앞으로는 더 발전된 단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당장 운영진의 규모를 늘릴

생각은 없지만 해외 인턴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아이섹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여름 방학에 보스턴 지부에서의 첫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통증, 두통, 손목통증
- ② 두통, 편두통,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장애
- ④ 만성,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통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 ⑦ 만성,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통
- ⑧ 만성,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통
- ⑨ 만성, 천식, 알레르기, 비염, 두통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주택 구매 올해는 조금 쉬워질 듯

거래량은 27% 늘었지만, 가격은 5% 하락
예외적으로 보스톤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던 매사추세츠 주의 주택 가격이 봄 시장에 진입하면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한 채 계속 높아져 가는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도 여전히 주택 매매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첫 2개월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은 총 6,294 채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증가한 수치

다.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진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5%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312,500 달러였지만, 2월에는 3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떨어졌다.

콘도 거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콘도 판매는 1월과 2월, 2개월 동안 작년에 비해 26%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중간 가격은 3.2% 하락한 285,000 달러였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택 가격이 가

장 많이 떨어진 곳은 케이프 코드였다.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10%가 하락해 중간 가격이 315,000 달러를 기록했다.

보스톤 서쪽에 위치해 많은 부유한 타운들이 속해 있는 미들섹스 카운티는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 변동이 가장 심했다. 미들섹스 카운티의 주택 거래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주택 거래 가격이 1% 떨어져 중간 가격이 433,000 달러였다.

매사추세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지만 보스톤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타운들은 예외다. 씨픽 카운티의 주택 가격은 다른 곳의 양상과는 달리 여전히 가격이 5% 상승하여 중간 가격이 420,000 달러였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다운타운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 2년만에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 그린라인과 블루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난 21일부터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Government Center Station)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간의 긴 재건축 기간을 보내고 새롭게 오픈한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 기념식에는 공화당의 찰리 베이커 주지사과 민주당의 마티 윌시 보스톤 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재건축 기간이 최초 계획했던 기간 내에 정확히 끝났으며, 예산비용 역시 정해진 9천만 달러의 예산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말했다.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은 지

난 2년 동안 승객들이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중에도 그린라인과 블루라인 전철은 우회하지 않고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을 통과해 지나다녔다.

새롭게 단장한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은 유리로 덮여진 메인 출입구와 한층 넓고 시원해진 로비가 특징이다. 특히 유리를 통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은 1898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스컬리 스퀘어 스테이션(Scollay Square Station)으로 불렸다. 스컬리 스퀘어 스테이션은 미국 첫 전철의 세 번째 정류장이었다.

jsi@bostonkorea.com



2년만에 다시 문을 연 거버먼트 센터 스테이션의 메인 출입구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 2016년도 장학생 모집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연례행사로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상: 뉴잉글랜드 거주 한인 12학년/대학/대학원생
- 신청 마감일: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 선발기준: 신청서 참조
- 신청서: <http://sites.google.com/site/snuaane> 에서 다운
- 문의사항: 위 동창회 웹사이트로 연락 바람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이의인 장학위원장 이강원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공, 리얼터



주택,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공화 유권자 63% "트럼프 과반 미달해도 후보 지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현재 공화당 경선 주자 중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블룸버그폴리티카가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유권자 63%가 대의원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가장 많은 수를 확보하기만 한다면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자가 되도록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트럼프의 후보 지명을 막기 위해 중재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공화당 주류의 물밑 작전과 상충되는 여론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경선 후보로 최종 지목됐을 경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와 클

린턴의 가상 대결에서 클린턴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54%로 트럼프(36%)보다 18% 포인트 더 많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경선 주자 중 유일하게 클린턴을 꺾고 승리하는 후보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였다. 47% 지지율을 받은 케이식은 클린턴을 4% 격차로 제치고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2일 애리조나 프라이머리, 유타 코커스 등을 마친 현재까지 트럼프는 대의원 최소 740명(1명은 비선언대의원)을 확보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은 465명(2명), 케이식은 143명을 차지했다. 공화당 최종 경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선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해야 한다.

yjw@news1.kr



미국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만 아니면 공화, 본선서 민주 클린턴 이긴다"

11월 대선 가상대결...트럼프는 클린턴에 10%p이상 완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간 가상 맞대결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힐러리 클린턴 전국무장관에 앞섰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10%포인트(p) 이상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식은 클린턴을 51%대 40%로 크게 앞섰다. 크루즈는 47%대 44%로 3%포인트(p)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레이스 선두주자 트럼프는 49%대 38%로 크게 뒤졌다.

케이식의 강점은 무당과 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지지도는 클린턴과 비교해 36%p 높았다. 또 공화

당 후보 중 케이식은 17%로 민주당 표를 가장 많이 가져왔다.

트럼프만 클린턴에게 지게 되는 결과는 그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공화당 유권자들 내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본선에서 클린턴-트럼프 맞대결이 성사되면, 크루즈의 지지자 34%는 제 3의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10%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체 유권자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9%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클린턴에 이 같은 반응은 33%였다. 공화당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는 25%로 최대였고, 케이식이 7%로 가장 낮았다.

allday33@news1.kr

케이식 "내가 포기하면 트럼프 거저 지명"...사퇴 일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의 지지자들과 공화당 주류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24일 자신의 경선 포기는 도널드 트럼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케이식은 이날 위스콘신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가 포기하면, 트럼프가 틀림없이 지명될 것이다"고 말했다.

케이식은 크루즈가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 등 동부 주들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이들 지역에서는 자신이 경쟁력이 있으며 이전 동부 지역 경선에서 이를 입증했

다고 설명했다. 케이식과 트럼프는 버몬트에서 대의원 8명을 동수로 가져갔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트럼프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과 공동 2등을 기록했다. 케이식이 유일하게 승리한 곳은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다.

케이식은 "나는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대해 말해주겠다. 나는 크루즈 의원이 동부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치러진 애리조나와 유타 경선에서 케이식은 단 한명의 대의원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날 케이식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공화당 경선주자들은 누구도 전당대회 전에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한 필요 대의원 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까지 케이식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143명이다. 트럼프는 738명으로 1등을, 크루즈는 463명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7월 전당대회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1237명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후보도 필요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재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케이식으로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allday33@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100% Real Estate Professionals**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캐나다 대표 - 가.
10년 이상 보스턴 지역으로 유능한 국제 부동산 전문가(MBA)
을 대표하는 전직 BOSTON-CAMBRIDGE 지역 10년 이상
생활과 각 지역마다의 특징,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기존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과 시연과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가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5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69-4995

가택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uengram

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세가 적기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가격이 낮은 편이며 집 값은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realtor.com에서는 올해(2016년) 보스턴 지역의 집 값이 약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연방정부와 기금관리 인산 조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3.56%(30년 fixed)로 2015년 4월경 이후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하락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해서 임대비로 나가는 돈을 투자금으로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점점 회복이 광어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8년 이상 보스턴에 거주 분들의 집 구입을 권유합니다. 보스턴과 가까운 지역은 타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트리로 방2 +화2 1500 SF의 권토비는 최소 \$ 2,400 이상을 요구하여 한국 좋은 곳들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은 3,000불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 \$401,000 달러
다운페이 \$100,000 달러
용자금액 \$300,000 달러
용자 비율 4.5% (현재 집값), HOA(콘도 관리비) 매달 \$300, Home Insurance : 800\$/yr
세금등을 합하여 계산하면, 연금 매이먼트가 약 \$2287를 나옵니다.

\$100,000불의 다운 페이로 40년분 정도의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도, 매달 권토로 페이먼트를 내야하고, 할금을 냈다 생활하는 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기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임대비를 투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해공으로 남아가는 비용을 저축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용자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여유로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소유자나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를 통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또한 많은 고관이나 부담없이 부동산 구입을 해야할 적기입니다. 좋은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권토비로 나가는 돈 보다는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매상과 달리 모기지물도 현재는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고 (8.6% 까지) 올랐을 때도 집 가격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모기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전망이 후세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스턴 중심 지역의 콘도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매달로 나오는 값 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원하시면 뉴스타 부동산의 GINA CHOI 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거침없는 질주... "위스콘신 못 막으면 게임 끝"

(서울=뉴스1) 최홍일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22일 서부 지역으로 옮겨간 경선지중 최대 승부처인 애리조나 주(州)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유타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대승을 거둬 트럼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공화당 주류에 희망을 안겼다.

민주당에서는 1위 경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거뒀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유타와 아이다호 코커스에서 반격에 성공해 승부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였다.

◇트럼프 "애리조나서 예상보다 큰 승리"

트럼프는 애리조나 프라이머리에서 경쟁자 크루즈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꺾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 애리조나에 걸린 대의원 58명을 독차지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애리조나서 예상보다 훨씬 큰 승리를 거뒀다.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민주당 애리조나 경선에서는 클린턴이 샌더스를 제치고 승리했다. 애리조나에 75명(슈퍼대의원 10명 제외)이 걸렸다.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클린턴은 57.7%, 샌더스는 39.8%를 얻었다. 민주당에선 모든 지역에서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이 배분된다.

반면, 유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는 크루즈와 샌더스가 각각 설욕했다.

크루즈는 개표가 69% 진행된 가운데 69.0%를 얻었다. 케이식은 16.9%, 트럼프는 14.2%를 확보했다. 유타에서는 대의원 40명이 득표에 따라 나눠진

다. 다만,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승자독식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루즈는 대의원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날까지 경선을 치르면 서 최소 740명(1명은 비선언대의원)을 확보했다. 크루즈는 465명(2명), 케이식은 143을 차지했다. 공화당에서는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선 1237명을 확보해야 한다.

유타에 걸린 민주당 대의원 수는 33명(4명)이다. 또 이날 민주당만 치른 아이다호 코커스에는 23명(4명)이 걸렸다. 샌더스는 아이다호에서 78.0% 대 21.2%로 압승을 거뒀고 유타에서도 승리해 이날 3군데 경선만 치르면 클린턴보다 대의원을 약간 더 확보했다. 샌더스의 승리는 지난 8일 미시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샌더스는 성명을 내고 투표율이 "엄청났다"고 강조하며 "아이다호와 유타에서의 압승은 우리가 남은 경선에서 중요한 승리를 계속 거둘 것"이란 확신을 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총 대의원 수에는 샌더스가 클린턴을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클린턴은 1681명(슈퍼대의원 467명), 샌더스는 927명(26명)을 확보했다. 민주당 후보 티켓을 따려면 대의원 최소 2383명이 필요하다.

이날 경선은 벨기에 브뤼셀 테러 소식에 전해지며 미국 내에서 안보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치러졌다. 이로 인해 투표에 앞서 트럼프와 크루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거나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세웠다.

트럼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벨기에 당국은 앞서 불합한 용의자들을 고문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크루즈는 "이웃에 있는 무슬림들이 급진화되기 전에 이들에 대해 순

찰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사법집행기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반면, 클린턴은 이날 밤 시애틀 유세에서 "미국은 선도해야지 몸을 숙일 때가 아니다. 우리는 선도할 것이며, 우리는 테러리즘에 이길 것이며,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을 지킬 것이다"며 트럼프와 크루즈의 이민 정책을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공화당 위스콘신 경선이 승부처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들의 하나인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 또 쟁 브루어 전 지사와 마리코파 카운티의 지역 보안관 조지프 아르페이오의 지지를 끌어낸 점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엄중 단속을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몰몬주(Mormon state)라고도 불리는 유타에서는 크루즈가 이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가 크루즈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롬니는 "그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화당 후보"라면서 케이식에 표를 주는 것은 트럼프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고 '반트럼프' 표 분산을 저지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경선주자들이 2주 뒤 열리는 위스콘신 경선에서 트럼프를 꺾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필요 대의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크루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만 투표하는 곳에서는 고전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날 트럼프는 '공화당 폐쇄형 프라이머리(민주당원과 무소속 투표가 금지

)'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날 클린턴은 애리조나에서 중장년과 비백인 층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재차 증명했다. 하지만 아이다호와 유타와 같이 백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고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클린턴은 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순탄한 길을 가고 있다.

샌더스는 이번주 경선이 치러지는 6

개 주에서 승리를 챙긴다는 계산이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워싱턴에서 오는 26일 경선이 치러진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은 모든 주에서 득표에 따라 대의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클린턴은 특정 주에서 지더라도 대의원을 차곡차곡 쌓으며 최종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공화화과 민주당의 후보들은 오는 11월 8일 본선에서 맞대결한다.

allday33@news1.kr

공화당 22일 경선 결과

R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존 케이식	
	득표율	확보 대의원	득표율	확보 대의원	득표율	확보 대의원
애리조나(P)(58)	47%	58	24%	-	10	-
유타(C)(40)	14%	-	69%	40	17	-

(괄호안은 대의원 수)

민주당 22일 경선 결과

D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득표율	확보 대의원	득표율	확보 대의원
애리조나(P)(75)	58%	41	39%	22
유타(C)(33)	25%	5	74%	18
아이다호(C)(23)	21%	5	78%	17

(괄호안은 대의원 수)

• 현재 획득 대의원 수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최소 대의원 수 1237명	
도널드 트럼프	739(비선언대의원 1명 포함)
테드 크루즈	465(비선언대의원 2명 포함)
존 케이식	143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최소 대의원 수 2383명	
힐러리 클린턴	1681(슈퍼 대의원 467명 포함)
버니 샌더스	927(슈퍼 대의원 26명 포함)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d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크레딧 교정,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only **\$87** 로 전문적인 고액서비스 (\$499 (1Year Money Back))
Collection / Late Payment / Charge Off / Bankruptcy / Judgement / Lien / Repossession / Foreclosure / Garnishment

가능 : 모든 할인 수 있는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1.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2.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3.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4.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5.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6.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7.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8. 크레딧 신원조사: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Since 2004)

가능 : 신속한 평가와 1년간 환불 보장

1. 크레딧 교정 비용: \$87 / Month, \$499 / 1 Year
2. 신속한 결과: 일반에 비해 5개월 단축된 서비스입니다. 더 Hard case 지 경우 약 5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기비 사정량과 동시에 크레딧 점수 상승 보장입니다.
3. 1년간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 교정 후 1년간 크레딧 점수 상승을 보장합니다.
4. 크레딧 교정: 크레딧 교정 후 1년간 크레딧 점수 상승을 보장합니다.

비주 고객에 상담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 **T 617.921.5127**
0980709 (Over Revolution Specialist)

크레딧 교정 교정: www.creditfix.com / www.creditfix.com
North Lee: www.creditfix.com / www.creditfix.com
Email: creditfix@creditfix.com | 921 Harvard Square Suite 2 Allston, MA 02134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지방정부 재산세 수입 사상 최대...지방재정에 효자

지난해 4분기 법인세 수입은 전년비 6.9% 감소

(로이터=뉴스1) 온다에 기자 =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난해 4분기 세금수입이 3892억달러로 증가했다고 미국 통계국이 22일 밝혔다. 전년도 4분기보다 4.2% 확대됐다. 지난해 3분기 세수 수정치인 2997억달러에 비해서는 35% 늘어났다.

세수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재산세다. 지난해 4분기중 지방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198억 달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납부된다.

재산세 증가가 납세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산세 증가에는 물가상승과 인구증가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개별

납세자의 실제 부담은 덜 하다고 링컨 토지정책 연구소는 밝혔다. 물가와 인구증가 효과를 제거한 재산세 증가폭은 판매세와 소득세 증가세보다는 더 작다.

물가효과를 제거한 1인당 실질 재산세 수입은 지난 25년간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세와 소득세 수입은 각각 31%, 48% 증가했다고 링컨 연구소 애널리스트들이 밝혔다.

통계국은 가장 규모가 큰 4개 주와 지방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법인세 순수입은 지난해 4분기 6.9% 감소한 108억달러를 기록했다.

hahaha8288@news1.kr



아이폰SE

4인치로 돌아간 '아이폰SE'...가격 250달러 낮춰 공개

16기가 아이폰SE 399달러...64기가 499달러
9.7인치 아이패드 프로 32G 599달러...200불 ↓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애플이 21일 '아이폰SE' 등 신제품을 공개했다. 아이폰SE는 기존 6S 제품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나, 크기가 4인치로 다시 작아지고 제품가격도 대폭 낮춰졌다. 중국 등 신흥국을 주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본사에서 개최한 신제품 공개행사에 따르면, 아이폰SE 16기가 제품은 399달러로 책정됐다. 649달러였던 기존 제품(아이폰6S)에 비해 250달러나 낮은 가격이다. 아이폰SE 64기가 제품은 499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아이폰5S 출시 당시 가격인 649달러(16기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애플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제품은 기존 아이폰 6S와 같은 A9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지난 2013년도에 출시된 아이폰5S보다는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아이폰SE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며, 로즈골드 색상이 추가됐다. M9모션코프로세서, 12MP후면카메라 등을 탑재해 아이폰6S 제품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다.

아이폰SE 신제품은 오는 24일부터 1차 출시국에서 예약주문이 가능하며 제품인도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내놓은 9.7인치 아이패드 프로도 기존 아이패드 프로 제품(12.9인치)과 사양이 유사하다. 후면 카메라 성능이 향상됐으며 애플

펜슬과 스마트 커넥터를 지원한다. 와이파이 전용 기준으로 32GB 제품은 599달러, 128GB 제품은 749달러다.

역시 기존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는 32GB 모델(799달러) 및 128GB 모델(949달러)에 비해 가격이 200달러 낮아졌다.

애플워치의 최저가격은 349달러에서 299달러로 인하했다. 새로운 색상과 재질의 손목밴드도 내놨다.

애플은 이날 모바일 운영체제 최신버전인 iOS 9.3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신제품 론칭에 앞서 애플의 팀 쿡 CEO는 테러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미국 수사당국과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쿡 CEO는 "애플은 고객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환절기, 황사지수 높을수록 헛갈리는 '코감기' vs '비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로 오인하기 쉬워 "정확한 진단 통한 치료 중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이자 대기가 가장 안 좋은 달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3월에만 총 69회의 황사 특보가 발표됐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3월이 결코 반갑지 않다.

특히 이제 막 새 학기를 시작한 아동 환자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건강보험 지급 자료에 따르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은 연평균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12만 2316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코 주위가 가렵거나 두통이 동반된다.

심하면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발작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확실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일반 코감기를 헛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두 질환은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헛갈리기 쉬운 알레르기성 비염 vs 코감기, 정확하게 구별해야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의 변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음식,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다.

발병 특징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흔히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일년 내내 계속 진행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현되면 맑은 콧물이 흐르고, 연속적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코막힘 증상도 나타나는 데 이처럼 오랫동안 코막힘 상태가 지속되면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집중력 저하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 코감기와 헛갈리기도 쉽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는 원인, 증상, 치료법이 각기 다르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물질이 원인이지만 코감기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열, 전신피로감, 통증, 인후통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1~2달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약물과 원인물질을 회피하는 것으로 치료하지만 감기는 휴식만으로도 1주 이내에 호전 가능하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는 것 중요! 항울열제 복용 시 전문의 처방 받아야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아이라면 학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찾아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센터

한남수 센터장은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문제인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에 반응하는지, 애완동물의 털, 집먼지 진드기,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는지 꼼꼼히 살펴 원인물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센터장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적극적인 치료 여부에 따라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면역검사 및 알레르기 반응 검사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를 헛갈려 항울열제를 장기 복용

할 경우, 내성이 생겨 약물 중독성 비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혈압 상승이나 심장, 갑상선질환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는 만큼 전문의 처방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국방문 의료 서비스 '휴람-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해외의료 사업팀 김수남 팀장은 "오랫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이려면 한국 방문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지금 전화하세요!

남자의 힘! 무한한 능력!

VIA-MAX GOLD가 당신의 성기능을 증가시켜 드립니다.

VIA-MAX GOLD 비아 맥스 골드

비아 맥스 골드의 탁월한 효과

- NITRIC OXIDE(산화질소)합과 특광으로 혈기부전제
탁월한 효과와 혈관순환 강화로 성기능 증진
- DHEA 5HMG 등 전체 남성 호르몬 증가로 성욕증가
- 신경기능 강화로 피로해
- 권립선기능 강화와 배뇨기능 향상

TALK

카카오톡 ID : **BostonKoreaEmart**

카톡친구 신청하세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 함량으로 지속적인 효과 보전

40% **\$199** **\$120**

20캡슐 BOX

VIA-MAX GOLD

VIA-MAX GOLD Formula (Sexual Enhancement) / 성분 (Ingredients)
 Epimedium Sagittatum (Horny Goat Weed) : Helps relieve impotence and premature ejaculation, Works as an aphrodisiac and helps relieve fatigue. Cordyceps Sinensis : It acts as via sex hormone systems, or by directly affecting the sexual center of the brain. The results are 67% increase for men / 2% for placebo. Also improves the impotence and increases libido. Moinda Diionols : It is traditionally used in China for impotence, erection, and infertility. Radix Cacosnops Pisosubo (DangShen) : Dried used as a tonic for the maintenance of general health and as a treatment for heart palpitations, asthma and persistent coughs. Polygonum Nuttallianum (FDI) : It is widely used as a rejuvenating tonic for longevity and prevents premature aging and gray hair. It is said to help maintain energy, strength, and vigor. Fructus Apralis Ceythoise (Black Capstan) : It is traditionally used to enhance mental abilities. Fructus Morus Albe (Mulberry) : It is used to nourish the yin, solidify the blood, promote the production of body fluid, stop thirst and assist in digestive health.
 ATTENTION: THIS IS NOT A DRUG AND MAY NOT BE EFFECTIVE ON EVERYONE!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워드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서 평가된 것. 하지만 전문의사의 소견 없이 건강이나 개인 사정에 위의 내용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국 법에 위법합니다.
 ※ 본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칼뽑은' 김무성 "유승민 지역 등 5곳 공천 안해"

"그렇게 막고자 했던 분열 되풀이...탈락한 동지들 말이 비수 꽃혀"
"잘못된 공천 최소한 거부하는 게 도리라 생각...모든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1) 김영신, 양새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비박 학살'이라 불리는 공천의 대표적인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구를,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 등 5곳에 대한 의결을 거부했다.

김 대표가 의결 거부를 통해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지역구로 두겠다고 한 곳은 대구 동구들과 서울 은평을을 비롯해, 친박계 이재하 예비후보가 단수추천된 서울 송파구를,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된 대구 동구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추천된 대구 달성군 등이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친박(박근혜)계에게 수적으로 밀린 점을 감안해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까지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친박 최고위원들과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어떤 대응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의 이날 최후의 반격은 유 의원 등의 20대 국회 원내 입성을 지지한다는 뜻이자, 친박계와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통첩이라는 풀이

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향식 공천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당대표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과 정도의 길을 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생겼다"고 친박(박근혜)계와 공천관리위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국민공천제를 통해 그렇게 막고자 했던 탈당과 당내 분열이 되풀이됐다"며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승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면서 당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탈당한 유승민 의원의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당과 멀어진 동지들의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로 꽃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탈락한 대구 수성을 여성

우선추천에 대해 법원이 탈락한 주호영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도 "당의 공천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선당후사'를 모든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 선거 불출마도 결행하고 당 단합을 위해 개인적 수모도 감수해온 저는 이번 공천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어떤 길이 진정한 새누리당을 위한 길인지 수없이 고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잡아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헌·당규를 지키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 확신했다"면서 5개 지역에 대해 "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곳은 무공천 지역으

로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어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길이 국민과 당원들께서 제게 맡기고 내리신 무거운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비판의 무거운 짐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전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혔다.

eriwhat@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ni Joo (주 윤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BURLINGTON WEEKLY SALE MAR. 25TH - MAR. 31ST, 2016

NEVER MISS OUT ON YOUR PROTEINS FOR BREAKFAST! MAKE THIS TODAY!

Learn to cook Korean egg bread! It's sweet and slightly salty, nutritious and even great looking. And of course super tasty! Try our baking recipe for your perfect Easter!

H마트가 소개하는 초간단 레시피~ 아이들 간식으로도,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대용으로도 최고의 계란빵! 이번 주말에 온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p>배추 박스 Napa Cabbage FRI/SAT/SUN ONLY 25/26/27 ONLY \$9.99 box</p>	<p>Nagaimo 마 코이모 고구마 Medium Size \$3.99 lb.</p>	<p>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Medium Size \$1.49 lb.</p>
<p>수녀원 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 - 16oz. \$0.99</p>	<p>이스라엘 만다린 (자파) Israeli Mandarin (Jaffa) \$1.79 lb.</p>	<p>무 박스 Radish FRI/SAT/SUN ONLY 25/26/27 ONLY \$9.99 box</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Ox Tail 소꼬리 \$9.99 lb.</p>	<p>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차돌박이 \$8.99 lb.</p>	<p>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49 lb.</p>
<p>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가스용 돼지고기 \$4.99 lb.</p>	<p>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 사태 \$3.4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EA PRODUCTS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2 lbs./pkg. \$7.99</p>	<p>Pollock Fillet 동태전감 \$1.99 lb.</p>
<p>자연산 소금쿠이용 흰 왕새우 Head-on Wild Jumbo White Shrimp for BBQ 9-12's \$9.99 lb.</p>	<p>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고등어 \$1.99 lb.</p>
<p>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4.99</p>	<p>King Whiting 생태 \$2.99 lb.</p>

<p>NISHIKI Premium Medium Rice 니시키 쌀 15 lbs. \$14.99</p>	<p>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KWANGCHUN Green Tea Seasoned Laver Reg./Paeae - 0.7oz. x 10ea./box \$9.99</p>	<p>해오름 막국수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Somen 3 lbs. \$2.99</p>	<p>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5.29oz. x 3cans/pkg. \$8.99</p>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MON-THU ONLY 28/29/30/31 ONLY \$9.99</p>	<p>NISHI MOTO Sekka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MON-THU ONLY 28/29/30/31 ONLY \$9.99</p>	<p>해태 에이스 크래커 HATAI ACE Cracker MON-THU ONLY 28/29/30/31 ONLY \$2.99 12.84oz.</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p>
<p>CHORIPDONG Tteobokki with Sauce 조립되어 쌀팔년도 떡볶이 \$4.99 All Varieties/1.23 lbs.</p>	<p>해오름 굴뱅이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14.1oz. \$4.99</p>	<p>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All Varieties/8.8oz. 2\$5 ea./for</p>	<p>GLICO Pocky Biscuit Sticks 9cnt./Chocolate - 4.47oz./ Strawberry - 4.19oz./pkg. \$2.99 글리코 포키</p>
<p>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HAIOREUM Aloe Vera Drink Mango/Pomegranate/Kiwi - 500ml. 2\$1.29 btl./for</p>	<p>에센시아 포도씨유 ESENCIA Grapessed Oil 34fl.oz. \$4.99</p>	<p>워싱턴 거실 덧신 Quilted Indoor Slippers Rora/Flower/Ashley/Mable - Pair \$1.49 -\$2.99</p>	<p>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 GLASS LOCK Glass Food Container 1800mL/ea. \$9.99</p>
			<p>조지루시 전기 그릴 ZOJIRUSHI Electric Grill EB-DLClO/ea. \$99.99</p>

Hurry Hurry! HARU HARU FANCY RICE IS HERE!

Taste the difference California sun can make.

다양한 하루하루 쌀 제품들을 지금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U.S. NO.1 EXTRA FANCY
Haru Haru

일단 출마길 막힌 '진박' 정종섭·이재만 등 5명..."어쩌나"

진박 6인방 중 3명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
서울 송파를 진박 유명하, 은평을 유재길도 출마 못해
법원 가처분 인용한 대구 수성을 이인선도 출마 불투명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마침내 '옥새 투쟁'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진박'(眞朴·진실한 진박) 후보로 나선 4명 등 5명의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서울 은평을·송파을, 대구 동구갑·동구을·달성 등 5개 단수추천 지역 후보자 공천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단수추천 후보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공천이 확정된다.

또한 20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당에서 발급한 공천장을 들고 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천장에는 당인(黨印)과 당대표직인 두가지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김 대표가 의결 거부 선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5곳 후보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못 받는다. 즉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총선 후보 등록 기간에는 당적 변경이 안돼 이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4곳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진박' 후보들이 나서 공천과정 내내 주도가 높았다.

대구 달성군(현역 조선 이종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리 4선을 한 곳으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대구 동구갑(조선 류성걸)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대구 동구을(3선 유승민)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3곳 모두 전날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친유'(親 유승민)계 의원 지역구라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진박 마케팅'으로 논란이 됐던 '진박 6인방'에도 포함됐고, 지난 10일 '총선용 방문'이란 논총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일 정 중 경북도청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정종섭 전 장관은 행사장 첫줄에 앉아 박 대통령과 유일하게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 송파을의 유명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도 '경기도 1호 진박'이라 불릴 만큼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다.

17대부터 경기 군포에서 내리 세번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이번에 당세가 강한 송파을로 옮겨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단수추천을 받아 '낙하산 공천' 이야기가 나왔다.

비박계 만형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에 단수추천된 유재길 예비후보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나 진박 성향 인사는 아니다.

한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라며 "지역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대구 수성을도 주호영 의원이 낸 공천효력 금지 가처분을 전날 법원이 받아들인면서, 우선추천된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지역 구인 부산 영도로 내려갔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이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 개회를 요구했지만 의장(대표)이 없어 의결권이 없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chacha@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축사를 한 뒤 초청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무성의 깜짝 승부수...진박 출마 봉쇄로 '전면전' 선포

분노한 김무성...중대 기로에서 옥새 카드로 반전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의결을 보류한 서울 은평을 등 5곳의 지역에 대해 무공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후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당 대표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상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던 '옥새 카드'를 꺼내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언행을 아꼈던 김 대표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무공천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힌 곳은 대구 동구을과 서울 은평을, 대구 동구갑, 서울 송파을, 대구 달성 등 5곳이다. 이 곳들은 소위 진박(진실한 진박)이라고 불리는 후보들이 전진 배치된 곳으로 이번 공천 심사내내 '뇌관'으로 불린 곳이다.

김 대표가 밝힌대로 후보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당대표 직인을 찍지 않을 경우, 대구 동구을의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 동구갑의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서울 송파을의 유명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들이 무소속이라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전날인 23일까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 24일 부터는 당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위해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김 대표가 이 같이 초강수를 꺼내든 배경에는 친박계로부터 힘싸움에서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 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김 대표는 그동안 상향식 공천 실현에 자신의 정치적 목숨을 걸만큼 목을 매었다.

그러나 이미 '이한구 공관위'에 의해서 상향식 공천이 상당수 이뤄지지 않은 만큼 김 대표가 더이상 침묵할 경우 자신의 대권 가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대표는 여기서 친박계에게 더 밀릴 경우 자신의 대권 주자 자리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대표의 입장에서 전날 탈당한 유승민 의원을 두번 버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안 과동으로 유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던질 당시 김 대표의 상황은 순망치한(唇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요약됐다.

자신을 겨냥한 칼 날을 대신맞은 유 의원에 대해 적어도 이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유 의원측은 김 대표의 이날 승부수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김 대표가 이제까지는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면서 상당히 놀라는 눈치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가 이제는 청와대와 노

선을 달리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한구 공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미 잠재적 우군을 상당수 잃은 김 대표가 선택의 지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계가 공을 들인 대구 진박들의 싹을 자르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도 세우는 한편, 순교자 이미지를 얻은 유 의원을 살림으로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anghwi@news1.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김무성 대표가 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지나 정(Gina Chung) 사원이
한인 및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 No minimum balance
No maintenance fee

무료 비즈니스 계좌

모바일 뱅킹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물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East Boston
Savings Bank**

18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800.867.3272 | 857.524.1673
email: cchung@ebsb.com
Kekao talk: haimhaelle

 Member FDIC. Member NCUA.

유승민 탈당 · 무소속출마 선언... "시대착오적 정치보복"

"정체성 시비는 저와 동료 쫓아내기 위한 핑계"
 "국민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소명 다하겠다"
 "저와 동지들 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뜨거운 지지를"

(서울·대구=뉴스1) 차윤주,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 공천학살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민 의원(3선·대구 동구 을)이 23일 당의 공천과정에 대해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밤 10시50분쯤 대구 지역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든 우리 집을 잠시 떠날까 한다.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한 이번

공천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공천에 대해 지금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며 "정의가 빛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 등이 그의 공천 보류 이유로 들었던 지난해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으로 불거진 정체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의원은 "몇번을 읽어봐도 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었다. 당의 정강정책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추구하는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체성 시비는 결국 저와 개혁의 뜻을 같이 한 죄박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을 주도한 그들에게 정체성 고민은 애당초 없었고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비박(非박근혜) 편 가르기만 있었을 뿐"이라며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가겠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정치의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1조2항'을 언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오늘 저의 시작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저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

진다"며 "제가 이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 보수개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바란다"고 허락하며 회견을 마쳤다. chacha@news1.kr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대구시 동구 화랑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근혜-유승민 질곡의 10년 돌아보니...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

박, 비례대표 초선 유 삼고초려로 비서실장 발탁하며 인연 시작
 유 독자행보 시동 걸며 사이 균열가다 "증세없는 복지 허구" 정면 항명에 배신자 낙인
 유 "내가 TK 적자, 탈당 절대 안해" 버텼지만 '고사작전' 압박에 결국 탈당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래로 꾸준히 낙천 압박을 받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결국 탈당·무소속 출마를 택하면서 박 대통령과 유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듯하다. 박 대통령과 유 의원, 그리고 이번 권력 투쟁의 다른 한축인 김무성 대표 간 인연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대표와 유 의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캠프에서 각각 비서실장, 정치특보,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으며 한솥밥을 먹었다. 박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를 맡게 되자 김 대표는 당 사무총장, 유 원내대표가 비서실장, 이 실장이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맡으며 '원조 친박' 그룹을 형성했다. 현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함께한 원조친박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한 초선인 경제학자 출신 유 의원을 '삼고초려' 끝에 비서실장으로 발탁해 자신의 지근거리에 뒀다. 2005년 10월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 자리가 생기자 유 의원이 공천을 받는 일종의 '특혜'를 입었는데, 이 배경에도 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박근혜 사람'으로 거듭난 유 의원은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듯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와 경쟁할 때 박 후보 캠프 최선봉에 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 의원은 친박을 자처하며 '이명박 저격수' 행보를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치러진 2011년 7월 전당대회에서는 "박근혜를 위한 1표를 달라"는 프레임 내걸어 전당대회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권은 유 의원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정치적 몸집을 키운 2011년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결정적 시기로 꼽는다. 2012년 대선을 1년 앞둔 2011년 10월,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디도스 공격' 과문으로 위기에 놓여 있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고 2선으로 물러나있던 박 대통령이 '조기 등판'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는데, 박 대통령은 당시 이미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조기 등판을 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 의원이 "당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 사퇴를 감행하며 홍준표 대표 체제 붕괴를 초래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조기 등판을 앞당긴 결과를 낳았다. 원치않게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박 대통령은 이때에 자신의 의중을 알고도 정반대의 행보를 한 유

의원에 대해 가우뚱 했다고 한다. 이어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 논란이 일어날 당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자 박 대표의 제안을 유 의원이 공개비판하며 두 사람 사이에 큰 괴림음이 났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과 유 의원이 틀어진 시기가 사실 2011년이 아닌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였다는 말도 나온다. 경제학자 엘리트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유 의원의 직언과 주변 참모들과의 트러블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일찍부터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2012년 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 유 의원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지 못하고 곁돌았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 초반에는 물밑에서 정중동 행보를 펼쳤지만 그의 입에서 이따금 튀어나오는 '반박(反朴) 발언들은 박 대통령의 심기를 끓임없이 자극했다. 친박계가 유 의원이 일찍부터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박 플레이'를 했다고 의심하는 지점이다. 일례로 2013년 10월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굉장히 황당한 단계"라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같은해 철도과업에는 박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을 따르

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2014년 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논란' 때는 여권 핵심부의 기류와 달리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해임론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에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기정사실화한 때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잇따라 내놓으며 '독자행보'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다 2015년 2월 유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에 올랐다. 유 원내대표는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반기로 해석됐다. 친박계에서는 "유승민을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사드 이슈, 정무특보 임명 등 거의 모든 현안서 청와대와 다른 톤의 목소리를 냈다. 췌기를 박은 사건은 국회법 파동이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를 미뤄도 좋으니 국회법 연계는 안된다"고까지 반대했는데도 여야 협

상이 타결됐고, 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내던졌다. 박 대통령은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몰아세웠고, 유 의원은 결국 원내대표 당선 4개월여 만에 내려와야했다. 유 의원은 사퇴의 변에서도 박 대통령을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을 읊었다. 친박계가 박 대통령을 반헌법적인 지도자로 매도하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후 정치권의 이목은 그의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 여부로 쏠렸다. 유 의원은 강연 등에서 "내가 TK 적자", "상향식 공천이 원칙" 등이라며 물갈이 칼끝을 방어했지만, 결국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지 10년 만에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됐다. 청와대와 친박계 핵심부에서는 유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 초래될 여론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으나 결국 '아웃'을 택한 이유는 총선 후 여권 권력 지형과 맞닿아있다. eriwhat@news1.kr



박근혜 대통령(좌)과 유승민 의원(우)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김종인 '사퇴 정국' 일단락...호남 방문 등 '총선 체제' 전환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로 내주쯤 선대위 출범할 듯
김대표, 이번 주말 1박2일 전남·광주 방문 검토 중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3일 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김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퇴 정국'이 일단락됐다.

더민주주는 공천도 마무리된 만큼 김 대표를 중심으로 이후 20여일 남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번 주말 1박2일 호남 방문을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은 후보 등록, 31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더민주주는 이 일정에 맞춰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총선 전략은 정장선 총선거획단장

을 비롯해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이철희 전략기획본부장, 손혜원 당 홍보본부장, 이재경 메시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박근혜정부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심판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 대표가 자신과 손을 맞출 또 다른 선대위원장을 영입할지다.

새누리당은 이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김무성 대표와 함께 선대위를 이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상태다.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인선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홀로 선대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김 대표를 영입하면서 호남인사를 들여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김 대표는 "단독선대위원장을 한다는 전제 하에 (영입을) 수락했다"면서 이를 일축한 바 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로 영입된 진영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유력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지만, 진 의원은 제안이 오지도 않았고, 제안이 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안받은 적이 없고, 제안을 받아도 지역에서 뛰어야해 위원장을 맡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최근 '당의 힘지'를 중심으로 총선 지원에 나선 문 전 대표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김 대표는 친노(親노무현)·주류 측에 대한 비판 여론과 '표의 확장성' 등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조용한 유세'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표는 전날(22일) 경남 창원 에 이어 이날 부산과 울산 지원에 나섰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에 도움이 되거나 후보들의 요청이 있다면 모든 선거운동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는 28일 선대위를 발족하기로 한 가운데 더민주도 이

번주 주요 전략 등 총선 체제를 갖춘 후 내주쯤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첫 유세지역은 역시 '당의 텃밭'인 호남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26~27일 전남·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cho11757@news1.kr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무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당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3 총선 공천장 수여식을 갖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자들과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야 공천잡음 딛고 총선준비 박차...여 공천진통 여진 계속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우여곡절 끝에 20대 총선 공천작업을 끝낸 야당이 후보 등록(24.25일) 시작일인 24일 본격적인 총선체비에 박차를 가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내홍과 잡음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고 최대승부처인 수도권 등에서 일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태세에 나선 것이다.

비례대표 순번 논란으로 한바탕 흥역을 치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 '경제심판론'에 불을 지피며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을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민주주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자당으로 동지를 옮긴 진영 의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선대위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아울러 "4.13총선 후보등록 시작

날 대통령이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안보불안 심리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호남지역 공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민의당은 선대위 상황 본부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4일 제주도 창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세몰이에 나섰다.

정의당도 공천작업을 마치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다만 어떤식으로든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서 물 건너간 당차원의 야권연대에 대해 "당대당 차원의 협상을 과국으로 몰아넣고, 여기저기서 지역과 개별 후보차원의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더민주를 비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 돌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유승민 의원

의 대구 동구을과 이재오 의원의 서울 은평을 등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겠다고 의결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새누리당 친박(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23일) 야권 출신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할 태세였다.

하지만 공천잡음이 계속되면서 선대위 발족식과 후보자 대회가 오는 28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여러 거물급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야권 후보 난립으로 인한 야권표 분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공천에서 컷오프 당한 인사들이 텃밭을 위협하고 있고 야당에선 당차원의 야권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갔으나 야당 후보별 단일화 여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pyj1@news1.kr

김종인, '대표 유지' 밝히며 친노, 운동권 정조준?

"일부 세력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 가는 길 요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대 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내 친노·운동권 세력을 정면 겨냥하고 나선 이유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표직 유지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셀프 공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을 끌고가기 위해 필요했기에 선택한 것"이라며 비례 2번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에 임하는 마당에 현재와 같은 일부 세력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더민주가 당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과연 이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 의심도 하고 많이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를 거치면서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도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노·운동권 세력이 자신의 사퇴설을 촉발시켰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명부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그의 사퇴설이 돈 지사 흘만에 나왔다.

20일 중앙위에선 일부 중앙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군을 A·B·C그룹으로 나눠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 방

식에 격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비례 순번이 2번에서 14번으로 바뀌었고 김 대표는 이에 당무를 거부하며 사퇴를 시사했다. 당초 자신이 만든 비례대표 명단을 중앙위가 바꾸자 사퇴카드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22일) 급거 상경한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을 위해 온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며 친노·운동권 세력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홍천선 공천관리관리위원장은 이날 "(특정세력이 지도부를) 흔들면서 중앙위를 과행 시켜놓고 다음날 중앙위에서는 (수정명단에 대해) 질서정연하게 투표를 했다"며 "지도부에서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세를 과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친노 세력이 뭔지도 모르겠다"며 "친노 정성은 반칙과 특권 없애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보이고 노무현대통령 이름 팔아서 그분 명예만 실추시키는 사람들이 천지"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김 대표가 사퇴카드로 친노·운동권 세력과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다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가 친노·운동권 진영과 전면적으로 각을 세우고 나서면서 셀프 비례 공천 논란도 잠재우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yj1@news1.kr

한국이 늙어간다...2040년 인구절반이 52세 넘는다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우리나라가 204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52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할 전망이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062만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가세를 이어온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도 점차 늘어난다. 중위연령은 2000년에 이미 31.8세로 30세를 넘어섰고 2014년 40세, 2015년 40.8세를 나타냈다. 25년 후인 2040년에는 50세가 넘는 52.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한다.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오는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62만2000명으로 2015년(662만4000명)보다 2.7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1%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대로 2060년에 이르면 15~64세 생

산가능인구가 2015년 3695만3000명에서 59.2% 줄어든 2186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 704만명인 1~14세 유소년인구도 2060년에 이르면 447만3000명으로 63.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을 나타내는 성비는 2015년 100.0으로 남녀 인구가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앞으로도 여성 인구가 계속 늘어 2060년까지 성비는 100.0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4년 혼인건수는 30만6000건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급감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은 다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혼건수는 11만6000건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10년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혼의 영향으로 2014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연령도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높아졌다.

2014년 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8%로 2012년 62.7% 비해 줄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4.4%로 2012년 48.7%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

각하는 비율은 2012년 37.8%에 비해 늘어난 39.9%를 나타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

하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 1.24를 기록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뒤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2010년 30.1세로 30세를 넘긴 이후 계속 높아져 2015년에는 31.2세를 기록했다.

drama@news1.kr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 총인구(천명) ◆ 인구성장률(%)



자료: 통계청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봄, 특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Seoul i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6880
SeoulFox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과 함께 손질된 머리카락이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1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2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개국된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롯데호텔 머리 대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스티븐 손
617-290-0623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152 sf.
아주 편리한 위치, 좋은 학교
Hardwood Floor, Skylight
이현주 401-935-3397



\$52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층에 master Br, 아름다운 부엌
넓은대지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0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제스리 978-606-6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00 sf.
Top 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650,000
Lexington, MA
3 Beds, 1 Bath, 1,188 sf.
좋은 학교,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519,000
Tever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0064



Rental \$2,200
Quincy, MA
1 Bed, 1.5 Bath, 1093 sf.
Luxury Apt, 좋은 전망, 차고
Jay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 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 baths, 1740 sf.
Shelly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 baths, 1579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 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2,200
Quincy, MA
1 Bed, 1.5 baths, 1093 sf.
JayLee 781-654-5281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 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Nail Salon	Restaurant
\$50,000 Dedham, MA 1200sf. 넓은주차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500,000 Woburn, MA 1600sf. 8 mani and 8 pedi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309,000 Arli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

프렌차이즈/식당	Restaurant
우리 음식과 술 수불 WOBURN WATSON ESTD. 한국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한식 주점 수불	\$97,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한국식당업 프렌차이즈 및 개인 식당창업
EB5, E2 이민가능! 뉴욕 맨하탄과 대형 카지노에 오픈 기회!
SJPark 617-304-7001

Restaurant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499,900 Brockline, MA Restaurant w/Liquor 5000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 Kim 617-792-8615	\$475,000 Quincy, MA 100평 최신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상업/아파트 투자	Restaurant	Restaura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상업, 아파트 임대건물투자 SJPark 617-304-7001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 Bar SJPark 617-304-7001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495,000 Boston, MA A lot walk and car traffic SJ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가능성!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보스톤 아파트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를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탐 브래디에 대한 빌 벨리치 감독의 생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4년도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는 2라운드에서 지미 거라폴로를 지명했다. 이 선택을 두고 많은 이들이 패트리어츠가 쿼터백 탐 브래디의 은퇴 내지는 기량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여겼다.

당시 거라폴로를 선택한 결정에 대해 빌 벨리치 감독은 “우리는 브래디의 나이를 알고 있고, 브래디의 계약 상황을 알고 있다” 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거라폴로를 지명할 당시 브래디의 나이는 37세였고 잔여 계약 기간은 4년이었다. 거라폴로가 입단하면서 제2 쿼터백이었던 라이언 맬렛은 자연스럽게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되었다. 거라폴로는 패트리어츠의 백업 쿼터백이자 브래디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었다.

2013년 브래디의 성적 때문에 벨리치 감독이 백업 쿼터백을 필요로 했을 수도 있다. 2013 시즌에 브래디는 25개 터치다운, 11개 인터셉션을 기록했고 쿼터백 레이팅은 87.3에 그쳤다. 시즌을 망친 정도의 성적은 아니지만 리그 최고 수준의 쿼터백으로 불리기에 무리가 있는 숫자다.

만약 2013 시즌이 브래디의 기량이 떨어지는 시작점이었다면, 거라폴로

는 브래디의 은퇴를 대비해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벨리치는 당시 인터뷰에서 “쿼터백 포지션과 관련해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런 문제는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대처해서,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 며 “어떤 팀이라도 쿼터백을 1명만 보유할 길 원하지 않는다. 쿼터백 한 명이 팀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어쩌면 거라폴로를 선택한 것이 브래디를 자극할 수도 있다. 2014 시즌에 브래디는 패트리어츠를 수퍼볼 우승까지 이끌었다. 2015 시즌에는 시즌 후반 주전 공격수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유력한 MVP 후보로 여겨질 만큼 절정에 가까운 기량을 선보였다.

반대로 거라폴로는 NFL에 진입한 이래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브래디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거라폴로는 이미 승패가 확실한 경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투입되곤 했다.

브래디가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 덕분에 올해 오프시즌 동안 패트리어츠와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브래디는 계



패트리어츠 최고의 패스 러서 앤드류 존스가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약 연장에 따라 2019년까지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된다.

벨리치 감독은 오프시즌에 열린 연례 NFL 감독 모임에서 최근 맺은 계약 연장은 “당연히 브래디에게나 우리 팀에게나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

다.

브래디와 20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다” 며 “그러나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해왔다. 나는 브래디가 아닌 다른 쿼터백을 경기

장에 내보낼 생각이 없다. 브래디는 내 쿼터백이고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MLB] 텍사스 3년차 추신수, 이제는 팀 리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3번째 시즌을 앞둔 '추추트레인' 추신수가 팀의 리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엠엘비닷컴(MLB.com)은 22일 "추신수가 기량 향상은 물론 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2013시즌이 끝난 뒤 텍사스와 7년간 총액 1억3000만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형 계약에서 오는 부담감과 부상 등의 여파로 2014시즌에는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15년 전반기까지도 추신수는 타율 0.221 출루율 0.305 등으로 부진했다. 하지만 후반기 타율 0.343 출루율 0.455 등을 기록하며 부활에 성공, 텍사스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기여했다.

MLB.com은 "텍사스 구단은 추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맹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믿고 있다. 추신수는 팀에 편하게 적응하고 있고 클럽하우스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리더"라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구장과 동료는 물론 경기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친숙해졌다. 두 시즌을 보내면서 경험이 쌓였고 이제는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투수 데릭 홀랜드는 "이번 겨울 추신수와 함께 운동을 했는데 매우 좋은 시간을 보냈

다"며 "추신수가 팀에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추신수는 진정한 팀 리더가 됐다"고 신뢰를 보였다.

제프 베니스터 감독과 존 다니엘스 구단주도 추신수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베니스터 감독은 "추신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치켜세웠다. 다니엘스 단장도 "지난해에는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추신수는 강한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칭찬했다.

추신수는 이번 시범경기에서도 1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0을 기록하면서 2016시즌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다니엘스 단장은 "추신수는 스프링캠프를 훌륭하게 소화했고 타석에서 좋은 정신력을 갖고 있다. 또 리더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추신수는 매일 경기장에 가장 빨리 오는 선수다. 그의 엄격한 자기 관리는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흐뭇해 했다.

한편, 추신수는 22일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에서 2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펼친 추신수의 타율은 0.286에서 0.320으로 상



추신수(34 · 텍사스 레인저스).

승했다. 추신수는 지난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이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앤드류 캐시너를 상대로 좌익 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를 뽑아냈다. 유격수의 수비 범위를 가깝스로 벗어나는 행운의 안타였다. 추신수는 후속타자 루그네드 오도어의 적시타 때 득점에 성공,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추신수는 3회초 타구를 좌익수 방향으로 보냈다. 높게 솟은 타구를 좌익수가 잡지 못하면서 또 다시 안타로 출루하는 행운이 이어졌다. 그러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득점을 추가하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5회초 투수 팡볼, 7회초 삼진을 당한 뒤 7회말 수비에서 조던 댁크스와 교체됐다.

alexci@news1.kr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ablu) Parish of Corpus Christi

성목요일 (3/24)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3/25)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3/26)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3/27)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거룩의 터전입니다 (행 1:14)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일예배 / 저녁 7시30
동요/동차/초경/봉고광부대회/행정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담임 목사 / 우사양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평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8.988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ke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일일경 목사
유년부, 담임목사 목사
주노 데이비드 목사 권도사
정영/김민 김민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종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Belknap,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별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25, (978) 944-2404
www.bostonumc.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봉고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미 육군 지원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

지금 전화하세요!
781.330.6043

U.S. ARMY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함께 하신 말씀 배우심이 부끄러우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에 열매를 맺을 줄을 삼아드립니다.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9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성서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it카드 프로그램, 각자의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용카드사 겸사령기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사자직,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THE BEST GUARDED
SECRET SAUCE”**



본촌 세일렘 오픈!

THE BEST FRIED CHICKEN IN TOWN

NOW OPEN

DOWNTOWN SALEM

299 Essex Street, Salem, MA, 01970

(978) 594-8256 - facebook.com/bonchondowntownsaa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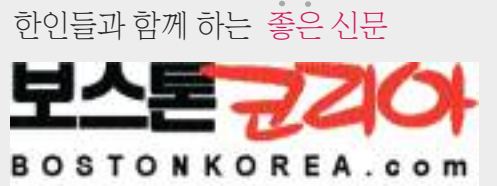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Bonchon

© 2016,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날씨문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당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청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시간문의	617-492-8300
아동보호	617-637-123
아동학대	617-748-2000
알고음/마약	800-792-5200
여성학대	617-445-1500
온전연허	617-248-0922
텔레버	617-351-4500
자원봉사	617-348-8500
적십자	800-522-8086
전화신청 (Verizon)	800-564-1234
전화교정신청(Verizon)	800-941-9900
택시	617-555-1515
AAA	617-343-4475
FBI	800-222-4357
MBTA	617-741-5533
NSTAR가스	800-392-6100
NSTAR 전기	800-572-9300
RCN케이블TV/전화	800-592-2000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둔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둔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5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분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경주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퀵시치과	617-471-2184
아이코덴탈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ASHLAND FAMILY DENTAL	781-891-8978
장승혁보철임플란트	508-881-7272
전문치과	617-489-1470
기타	401-729-2711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데드햄 네일살롱 테크니션 구함
초보자 환영
T. 312-235-9660

청소하실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다섯 부부
T. 617-869-1698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매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WANTED

General Dentist (Saugus, MA):
Under supv of Principal Dentist/Pres.,
diagnose & treat diseases, injuries, or
malformations of teeth, gums & related oral
structures of mouth & provide preventive/
corrective evcs. of gen'l dentistry for a dental
office largely w/Korean patients of all ages.

Reqs: DDS or DMD degree from a dental
college accredited by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Must have a valid Commonwealth of MA
license to practice dentistry or immed.
eligible & a valid individual anesthesia permit
to administer Nitrous Oxide-Oxygen from
Commonwealth of MA or immed.
eligible for permit.
Fluency in Korean.

Reply to Han Soo Lho, DMD, PC
d/b/a Saugus Dental Center
at hansoolhodmd@yahoo.com

쌩쌩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동네변호사 조들호', 의뢰인의, 의뢰인에 의한,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박신양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동네변호사 조들호' 의뢰인을 위해 살아가는 변호사 박신양의 일상을 공개했다.

21일 KBS2 새 월화드라마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서민형 변호사를 대표할 조들호 역을 맡은 박신양의 24시간이 담긴 스틸컷이 공개됐다.

조들호는 의뢰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꾀꿍을 뚫한 눈빛과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발산하며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군가를 미행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변호를 준비하는 틈틈이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등 잠자는 등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그의 진심을 엿보게 한다.

무엇보다 조들호 캐릭터는 박신양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그려진다. 상대방을 장난스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의중을 캐치하는 조들호의 능력이 박신양의 묵직한 연기와 만나 환상의 화음을 낼 것으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알고 보면 더욱 흥미진진할 관련 포인트 세 가

지를 짚어봤다.

박신양, 법조계 이단아 조들호를 만나다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박신양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법조계의 이단아 조들호 캐릭터를 매력적이고 유쾌하게 그려낸다. 특히 망가지도 불사하는 열연은 드라마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따뜻한 이야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남을 한 사람, 변호사들의 이야기로 감성을 자극한다. 냉정한 상황 속 밀도 높은 감정 표현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조들호, 이은조(강소라 분)의 모습은 드라마에 더욱 빠져들게 만들 요소로 작용한다.

생활밀착형 에피소드로 유쾌함 선사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녹여내 집중도를 높인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빠르게 전개되며 시청자들에게 시원하면서도 가슴 뜨거워지는 한 방을 전달한다.

lee1220@news1.kr

'태후' 시청률 30% 돌파+OST 1위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태양의 후예'가 안방극장과 음원차트를 모두 접수했다.

지난 23일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9회는 30.4%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분당 최고 시청률에서 30%를 넘은 적은 있지만 평균 시청률로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수목드라마가 30%를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방영된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후 4년만이다. 특히 '태양의 후예'가 이제 겨우 중반부에 접어들었고,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해 볼 만하다.

'태양의 후예'는 안방극장 뿐만 아니라 음원차트도 접수한 지 오래다. 발표하는 곡마

다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차트 상위권 줄 세우기를 선보이고 있다. 다른 가수들의 신곡이 끼어들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9회 방송이 끝난 자정 공개된 린의 '위드 유(With You)'는 네이버뮤직, 지니뮤직,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주요 7개 음원 차트의 1위를 휩쓸었다. 먼저 발매된 윤미래의 'ALWAYS', 첸과 펀치의 'Everytime', 다비치의 '이 사랑', 거미의 'You Are Everything', 케이윌의 '말해 뭐해', 매드클라운과 김나영의 '다시 너를' 등도 굳건하게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그야말로 '태양의 후예 OST 넘사벽'을 세웠다.

lee1220@news1.kr



'집밥 백선생2' 백종원과 4인 제자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집밥 백선생'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지난 22일 밤 9시40분 첫 방송된 tvN '집밥 백선생2'에서 '백선생' 백종원과 개성 만점 네 제자의 흥미진진한 첫 만남이 공개됐다.

어색한 첫인사를 마친 다섯 남자는 폭소를 자아낸 사전 실력 테스트 영상을 함께 보며 어느새 하나도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해 앞으로의 '꿀케미'를 기대하게 했다.

새롭게 합류한 네 제자의 실제 주방에서 펼쳐진 사전 실력 테스트가 진행됐다. "달걀로 요리하라"는 백선생의 테스트 미션을 받은 네 제자는 저마다의 개성이 듬뿍 담긴 달걀 요리를 선보여 큰 재미를 선사했다.

먼저 달걀 요리 미션에 뜬금없이 '닭볶음탕'을 선택한 이종혁은 삶은 계란부터 닭과 야채를 한꺼번에 넣고 끓여버리는 상남자 요리를 선보였지만, 훌쩍 자란 두 아들 준수와 탁수의 냉정한 평가에 진땀을 흘렸다. 이어 어머니의 주방에서 볶음밥을 요리한 장동민

은 차근차근 섬세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백선생'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요리 막판 나지 젓갈을 넣어버리는 독특한 감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다음으로 막내 정준영은 온갖 조리 도구와 양념들이 가득한 자신의 주방에서 간단한 레시피의 '계란밥전'을 만들었다. 하지만 허세에 죽고 허세에 사는 요리 블로거답게 맛보다는 그릇과 데코레이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어 김국진은 사전 테스트에서 역대급 요리 무식자임을 입증했다. 눈앞에 놓은 프라이팬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기본. 가스불을 켜려다 오븐 타이머를 돌려버리고, 뒤집개를 쓴다는 생각조차 없이 손가락으로 달걀을 뒤집어 '달걀 토스트 대참사'를 일으켰다.

reddgreen35@news1.kr



'배트맨 대 슈퍼맨' 개봉, '인터스텔라' 보다 관객수 ↑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지난 23일 24시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해 1만8437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1월 개봉한 '인터스텔라'가 자정 상영으로 1만5181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보다 더욱 많은 관객을 불러모은 수치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역사상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배트맨과 슈퍼맨의 대결을 그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로 '맨 오브 스틸', '300'의 잭 스나이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슈퍼맨 역 헨리 카빌과 배트맨 역 벤 애플렉을 비롯해 에이미 아담스, 제시 아이젠버그, 제레미 아이언스, 켈 가독, 홀리 헌터, 로렌스 피시번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합류해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한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3월 7일 ~ 2016년 3월 1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태양의후예)	28.5%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8.5%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7.9%
4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18.6%
5	KBS1	KBS9시뉴스	18.5%
6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7.8%
7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6.4%
8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5.0%
9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4.7%
10	SBS	정글의법칙삼TONGA	14.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3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4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5	SBS	주말드라마(그래, 그런거야)
6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7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8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9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0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넌 is 뭔들	마마무
02	한숨	이하이
03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4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5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ZICO)
06	봄인가 봐 (Spring Love)	에릭남, 웬디
07	야 하고 싶어 (Feat. 시우민 of EXO)	지민 (AOA)
08	Rain	태연
09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10	PICK ME	PRODUCE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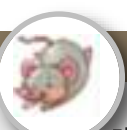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6		9	4
	9	1					6
			9	8		2	
				2		4	5
	1						3
2	4	7		5			
		2		9	3		
4						1	2
8	5		6				

3월 27일 - 4월 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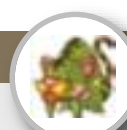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주위를 잘 살펴야

●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상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기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1일 길일, 28, 31일 주의.



소띠 | 자극제로 여겨야

●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원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합니다. ● 금전: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애정: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8, 30일 길일, 29,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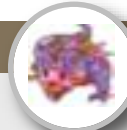
범띠 | 희망의 끈을

●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9, 2일 길일, 27,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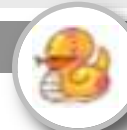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토끼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살아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자랄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9,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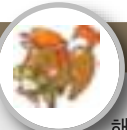
용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훌훌 털고 마음대로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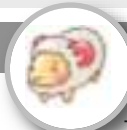
뱀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공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말띠 |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버어 여기저기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올인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2일 길일, 31,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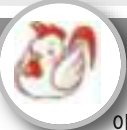
양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애쓰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원숭이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 운수: 남에게는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금전: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31일 길일, 30,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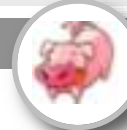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닭띠 |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 운수: 필요를 느끼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입니다. ● 금전: 급히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허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1일 길일, 31, 2일 주의.



개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을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 금전: 남에게 믿고 맡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2일 길일, 31, 1일 주의.



돼지띠 |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1일 길일, 27, 2일 주의.

女스타 성매매 루머,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강소라와 남보라가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연예인 성매매와 관련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온라인 및 SNS,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연예인 성매매 악성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 강소라와 남보라 역시 성매매 악성 루머의 피해자가 됐고, 이들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 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윌엔터테인먼트는 먼저 21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루머가 사실무근이라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적시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님에도 '증권자 짜라시'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배포, 재생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강소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여성으로서 쉽게 치우되기 힘든 상처를 줬다"고 전했다.

또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 및 추가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혔고, "계속해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강경 대응을 펼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남보라 역시 "관련 내용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바다.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최초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소라와 남보라 소속사가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이유는 해당



루머가 마치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배우의 루머, 속칭 짜라시에는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은 물론 성매매 금액도 상세히 적혀 있다.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루머가 아닌, 설득력 있는 사실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평소 대중들에게 호감 배우로 인식됐던 두 배우의 이미지는 훼손될 여지가 있었다.

게다가 원정 성매매 혐의가 드러난 유명 가수 A양은 일찍이 짜라시로 혐의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대중들은 짜라시를 신뢰하고 있는 분위기. A양은 원정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A양과 함께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여성 세 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짜라시에서 강소라, 남보라와 함께 이름을 올린 원더걸스 유빈과 달샤벳 수빈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루머들이 가벼운

재밋거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연예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지만 '왜, 어떻게'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없고 '누가' 성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만 뜨거울 뿐이다. 그 과정에서 신빙성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억울한 피해 연예인들만 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미지 타격은 물론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해 연예인들이다.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연예인 스폰서와 시크릿 리스트' 편 엔딩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쉬이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문제를 "돈이면 다 된다는 뿌리 깊은 착각"이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분들께 제안하고 싶다. 우리의 방송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겼다.

aluem_chang@news1.kr

'美원정성매매' 알선책 등 11명 재판 여성연예인은 약식기소

재력가와 성관계 갖고 대가받은 혐의

(서울=뉴스1스타) 김수완 기자 =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성연예인 4명이 모두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와 직원 박모씨(34) 등 2명을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강씨, 박씨와 함께 한국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

다는 의혹을 받았던 가수 A씨(29), 배우 B씨, 걸그룹 출신 배우 C씨 등 여성연예인 4명은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여성연예인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재미교포 사업가 D씨(45), 주식투자가 E씨(43) 등 역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씨와 박씨는 지난해 3월~5월 사이 미국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D씨로부터 한 번에 수천만원을 받고 여성연예인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E씨는 강씨, 박씨의 알선으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인물이다.

abilityk1@news1.kr



女배우들, 짜라시에 초강수...#악성루머 #사실무근 #법적대응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여배우들이 단단히 빨났다. 최근 증권자 짜라시를 통해 성매매 및 스폰서 관련 악성 루머가 확산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 현재 작품과 광고 등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만나고 있는 여배우들인 만큼,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떠돌고 있는 루

머에 가만히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배우 송혜교부터 신세경, 강소라, 남보라까지 '최초 유포자와 추가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악성 루머 근절에 나섰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00 - G07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억' 이성민, '갯성민'일 수 밖에 없는 신들린 연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기억'이 전작 '시그널'에 이어 몰입감 있는 연기와 스토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 첫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기억' 시청률이 케이블, 위성, IPTV 통합 유료 플랫폼 가구 평균 시청 4.2%, 최고 5.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연령별 시청률에서도 남녀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임을 첫방송부터 입증했다.

'기억' 1화는 주인공 이성민(박태석 역)의 휘몰아치는 연기에 압도되는 한 시간이었다. 1화에서는 박태석이 교통 접촉사고가 나, 신경외과 의사이자 친구인 주재민(최덕문 분)의 권유로 뇌 MRI 촬영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확인코자 했던 검사에서 박태석이 알츠하이머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인생의 황금기에, 성공과 명성을 모두 가진 그에게 찾아온 알츠하이머는 사형선고와도 다를 없었다.

'기억' 첫 화는 '갯성민'이란 말이 절로 나



올 만큼 이성민의 폭넓은 감정 연기가 안방극장을 압도했다. 여기에 김지수와 박진희의 절절한 사연과 연기도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특히 죽은 아들 회상신에서 이성민과 박진희의 오열은 안방극장도 함께 울렸다. 또 악

역 이기우도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했다. 다음 회차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구성진 극의 전개 또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3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우리집 꿀단지
2	KBS	아이가 다섯
3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4	SBS	내 사위의 여자
5	SBS	그래, 그런거야
6	MBC	아름다운 당신
7	MBC	가화만사성
8	MBC	내일도 승리
9	SBS	천상의 약속
10	MBC	최고의 연인

티보플레이 3월 3째주 신규 방송

1	CJ&M	기억
---	------	----

티보플레이 3월 3째주 최신 영화

1	무수단	이지아, 김민준
2	검사외전	황정민, 강동원

'검사외전' 황정민X강동원 든든 양날개, 좌 이성민 · 右 박성웅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황정민과 강동원의 최초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검사외전'이 영화의 힘을 실어 줄 이성민, 박성웅의 출격을 예고하고 있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영화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9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를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는 내용을 그리는 범죄 오락 장르의 작품이다.

이성민은 영화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인공이 합법적으로 세상 밖에 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

다"며 예측불허로 전개되는 스토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군도:민란의 시대"의 조감독이었던 이일형 감독, 배우 황정민씨와 또 한번 작업할 수 있어서 끌렸다"며 함께 호흡을 맞춘 감독, 배우들과의 호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성민에 이어 영화의 힘을 더할 배우는 바로 박성웅. 조폭, 형사, 살인마 등 강렬한 이미지로 관객들의 뇌리에 박혔고, '신세계'를 통해 "살려는 드릴게"라는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박성웅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특유의 흡입력 있는 연기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연기력을 지녔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2016 The Best On Demand, LLC. 모든 TV 서비스는 인터넷 TV TBO Play, 콘텐츠는 현재 미국과 TBO 내 콘텐츠에 해당하며, TBO Play는 본사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a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글리너** : 객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스**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스**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판매** 4. Full Plant **세탁스**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음식점**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오피스**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아파트 건물**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델리 & 컨비니언스

좋은 위치 상업용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국악, 영혼의 소리'를 만나고 와서...

몇 달 전부터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 주최로 준비해오던 국악 콘서트가 보스턴에서 열린 것이다. 이렇듯 멋진 국악 연주회가 먼 타국에서 우리 이민자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보며 국악 콘서트장을 찾아 연주회를 관람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귀한 국악의 소리와 국악의 명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다. 이 소식을 한인 신문의 지면과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 들으며 모두가 그랬을 것이다. 그 설레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을 것이다.

첫날의 연주는 가야금을 위한 신곡 연주회 (New Sound for Silk Strings)가 웰슬리 대학교 주엣 아트센터 오디오리움 (Wellesley College Jewett Art Center Auditorium)에서 있었다. 첫날의 연주를 놓치기 아까워 가까운 친구와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다 둘이서 다녀왔다. 이지영 교수의 가야금 연주와 더불어 김도연의 가야금과 Chase Morrin 피아노의 어우러진 하모니는 참으로 곱고 아름다워 숨이 멎을 만큼 긴

장을 놓을 수 없는 연주회였다. 참으로 감동으로 만났던 가야금 연주는 내 평생에 다시는 더 만나보기 어려울 것 같은 내 영혼을 휘돈 짜릿하고 황홀한 연주였다.

그리고 며칠 후 브랜다이스 대학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 (Brandeis University Slosberg Music Center)에서 '국악, 영혼의 소리'라는 타이틀로 국악 연주회가 준비되었다. 그 국악 콘서트에서는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 흥보전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다. 이날 뮤직센터의 200여 석의 좌석이 모두 찼으며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미국인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그만큼 한국 국악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날 특별히 사회와 해설을 맡은 해금 연주가이며 서울대 국악과의 미 국인 교수인 힐러리 핀첨-성의 연주와 한국어는 정말 놀라웠다.

공연의 순서 순서마다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한(恨)이라는 정서를 또 부인할 수 없었다. 참으로 한(恨)스러운 연주와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처음 <영상화상> 중 '염불도드리'와 '타령'을 시작으로 서공철류 가야금산

조, 판소리 <흥보가> 중 '박을 타는' 대목 그리고 승무와 원장현류 대금산조, 씻김굿과 태평소 시나위로 막을 내렸다. 가야금과 해금과 아쟁 그리고 대금과 장고와 피리 그 하나하나의 소리가 어우러져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소리가 이처럼 가슴을 파고들며 흔들어 댈 수 있음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한국의 국악과 전통춤을 좋아하는 내게 개인적으로 가슴을 파고드는 소리는 무엇보다도 낮은 바람 소리의 대금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듣던 국악 음악에 취해 있을 무렵 피리 소리가 가슴을 사무치도록 파고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내 그리움'의 소리였다. 내 어린 시절 추억 중의 하나는 친정 아버지께서 피리를 좋아하셨으며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피리를 연습하며 불곤 하셨다. 그 시대에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다며 밖에 나타내는 것을 꺼리셨지만, 내게는 빛바랜 아련한 추억이며 그리움이 된 것이다. 피리 소리를 들으며 멈추지 않던 울음을 참느라 힘이 들었다.

국악 공연과 더불어 브랜다이스 음대 로비에서 <Landscapes of the Soul: Korean Contemporary Art>의 주제를 가지고 한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한인 작가 미술전에는 김희정, 유수례 외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여 국악 공연과 더불어 풍성함을 더해줬다. 이번 전시회에서 개인적으로 더욱 감명 깊었던 것은 부족한 조각의 사진 한 점을 출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다이스 대학은 우리 집 딸이 졸업한 모교이기도 해 더욱 마음이 닿은 곳이기도 하다.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딸과의 지난 추억이 스쳐 지났다.

Contemporary Art)의 주제를 가지고 한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한인 작가 미술전에는 김희정, 유수례 외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여 국악 공연과 더불어 풍성함을 더해줬다. 이번 전시회에서 개인적으로 더욱 감명 깊었던 것은 부족한 조각의 사진 한 점을 출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다이스 대학은 우리 집 딸이 졸업한 모교이기도 해 더욱 마음이 닿은 곳이기도 하다.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딸과의 지난 추억이 스쳐 지났다.

'국악, 영혼의 소리'는 브랜다이스 대학교 슬로스버그 뮤직센터의 공연장을 휘감아 울리기도 전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왔다. 연주하는 내내 멈추지 않는 심장은 온몸과 마음을 휘돌아 굳어진 돌덩이가 되게 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영혼의 울림이었다. 공연장에서의 연주자와 관람하는 우리는 모두 둘이 아닌 하나로 공명하고 말았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번 공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신 한미예술협회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음악을 담당한 김유경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불어佛語 유감有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비가 왔다. 세우細雨였다. 봄비는 가늘어야 한다. 덕분에 세상이 온통 젖었다. 쓸쓸한 기운도 데려왔다. 진부한 말이기는 하다. 새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한 수분일게다. 보스톤에선 아직 두어 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가는 비를 맞은 생명들이 곧 튀어오를게다. 기대하시라.

일터에서 일이다. 프랑스에서 서류가 왔다. 모두 불어佛語였다. 대충 무슨 말인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할진대, 끄덕대며 꼼꼼히 해석해야 했다. 내가 투덜댔다. 영어로 보내면 어디 덧나냐? 시로써 상송으로 불어는 아름답다. 일상대화를 불어로 듣는건 감미롭다. 그런데, 일에서는 과학에서는 영어가 낫지 않던가. 영어는 어차피 국제 공용어가 아니던가 말이다. 고등학교적에 불어를 제2외국어로 배웠다.

불어선생님은 갓 학교를 마친 여자선생님이

였다. 짧은 스커트가 인상적이었다. 큰키에 파마기 덮힌 머리는 다 큰 사내놈들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선생님이 읽어 주던 불란서시詩는 얼마나 감미로웠던가. 라디오 심야방송을 듣는듯 했다. 한 해를 꼬박 선생의 과목을 들었다. 선생님이 지도교사로 있던 불어반에 특별활동으로 들어갔다. 상송이라 했던가. 불란서 노래말이다. 상송은 시를 읽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더니.

대학에서 일이다. 모 여대 불문학과 모임에 초대 받아 간 일이 있다. 여자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녀가 불란서 시를 낭송했다. 듣던 내가 완전히 뿔났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니다. 다만 불어가 훨씬 가까워지는 듯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줄 예전엔 몰랐던 거다.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다. 내 아이에게 외국어로 불어가 어떠한가 느즈시 물었다. 대답이 단

호했다. 놈! 내 욕심이 지나쳤다.

그즈음 쫓아에 무아란 포크송 가수그룹이 있었다. 너와 나라는 말이라 했고, 남녀 혼성그룹이었다. 그 여가수는 내 불어 선생님을 연상케 했다. 안경을 쓴것만 빼놓고 말이다. 왜 선생님과 여가수가 겹쳐졌는지 그건 모르겠다. 목소리가 비슷했던가. 그 여가수의 목소리는 목마와 숙녀가 배경으로 깔아야 한다. 가슴이 아련해진다. 이건 무슨 증상인지. 불어 이야기하다가, 여가수와 박인환시인까지 떠올린다.

한잔의 술을 마시고/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

...
세월은 가고 오는 것 ...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 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귤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박인환, 목마와 숙녀 중에서)

불어 일년 수강에 남은 단어는 '마드모아젤'이다. 적당한 리듬을 타고 혀꼬부러서 발음할 수 있다. 모두 불어 선생님 덕이다. 아참, 이 말도 기억한다. 봉주~우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1)



강원도에서 강력 추천품!

강원도 우수 농수산물전

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 꽃감,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
무청시래기, 안흥찐빵, 청국장

시골장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기간 : 4월8일(금)~4월10일(일), 3일장

행사문의 : 617.623.9620

<p>갯갈류</p> <p>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멧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반찬류</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계무침등</p> 	<p>나물류</p> <p>취나물, 곤드레, 부자쟁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면치류</p> <p>다시면치, 볶음면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p>	<p>떡종류</p> <p>강원도 오색감자떡,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p>
<p>건어물</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반건조오징어</p> 	<p>해초류</p> <p>참미역, 다시마, 미역귀, 돌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p> <p>말린꽃</p> 	<p>생선류</p> <p>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회</p> 	<p>기타</p> <p>잡쌀떡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 당뇨에 아주좋은 말려여주차 대봉꽃감</p> 	
<p>건강식품</p> <p>도라지 100% 진액, 겨우살이, 삼계탕용 재료,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매실원액, 100% 산약마가루, 당뇨에 좋은 개동쑥</p> 	<p>장류</p> <p>고추장, 된장, 막장, 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참기름, 들기름</p> 	<p>잡곡</p> <p>메밀묵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벚꽃더덕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2. 시팅불과 운디드니 대학살 (3)

망령춤과 시팅불의 사망 (계속)
그러나 담당국장은 상사인 전쟁부장관 (Secretary of War)과 협의한 결과 시팅불의 체포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통보했다. 11월 중순이 되자 인디언 동네는 완전히 망령춤으로 뒤덮였다. 거의 모든 일상적 활동이 중단되고 망령춤만이 인디언 마을을 휩쓸게 되었다. 이에 놀란 맥래프린 주재관은 워싱턴으로 급히 전보를 쳐서 부족의 추장들을 긴급 체포해서 군 요새에 감금할 것을 상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 시카고의 군사령부에 있던 곰 외투라는 별명을 가진 마일스(Nelson Appleton Miles)소장이 이 사건을 맡았다. 전 주재관인 맥길리커디(Dr. Valentine Trant McGillicuddy)는 군대를 동원하면 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마일스는 현지 군인들에게 앉아있는 소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890년 12월 15일 새벽시간에 인디언 경찰이 시팅불의 거처에 들어가서 시팅불을 깨웠다. 시팅불은 영문도 모른 채 주재소로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 이때 망령춤 옷을 입은 수많은 인디언들이 모여들었다. 인디언경찰과 시팅불을 보호하려는 인디언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인디언경찰이 권총을 발사하여 시팅불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인디언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순간이

었다. 시팅불의 죽음은 인디언 저항 세력의 종언을 의미했다.

지혜와 용맹과 덕을 고루 갖춘 앉아있는 소는 인디언의 이상적인 지도자이었다. 그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총을 쏘는 기술은 신기에 가까웠다고 하고 전투에서는 늘 앞장서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으며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겸비하였다고 한다. 열네 살 나이에 참가했던 크로우 족과의 전투에서 그의 특별한 용맹성을 확인한 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이름을 뛰는 소(Jumping Bull)로 바꿨다. 1869년 홍크파파지파의 대추장으로 추대된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소와 같은 여유와 인내를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디언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다. 시팅불은 꿈과 환영 속에서 미래를 보고 예언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문무와 영적인 능력까지 갖춘 시팅불이 야말로 인디언으로서의 최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백인들이 홍크파파의 사냥터를 침범하자 시팅불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모든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키는 180센티미터에 달했고 넓은 가슴과 커다란 두상은 그에게 특별한 카리스마를 갖게 해주었다.

원래의 이름인 '타탕카 이요탕카(또는 타탕카 이요타케)' 가 앉아 있는 소를 의미하듯이 그는 용맹성보다는 인내심이 더욱 돋보이는 지도자이었다. 어틀리(Robert M. Utley)

는 그가 쓴 시팅불의 전기에서 “그는 진정한 인디언이었으며 전통 문화에 충실한 문화의 수호자이었다. 그는 홍크파파 지파의 참다운 애국자였으며, 부족의 가치관과 제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라고 기술했다.

운디드니 대학살

스탠딩 록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던 홍크파파지파 인디언들은 그들의 큰 지도자 시팅불을 잃은 후 망령춤을 출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는데 이 중 일부는 마지막 남은 큰 추장 붉은 구름을 찾아 파인릿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1890년 12월 17일에 도망가던 100여명의 인디언들이 큰 발(Big Foot)이라는 별명을 가진 점무늬 엘크사슴(Spotted Elk)이 추장으로 있는 사이엔 강(Cheyenne River) 인디언 보호구역에 소재하는 미네콘주족 마을에 들렀다. 그날은 미국 전쟁부가 큰 발을 망령춤 소요사건의 주모자로 분류하여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날이다. 큰 발은 레드 클라우드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미네콘주 지파와 홍크파파 지파를 이끌고 12월 23일 파인릿지로 출발했다. 가는 도중 폐렴에 걸려 각혈을 하는 등 심한 고생을 하였다. 12월 28일 큰 발 일행은 제기병대 소속 군인들에게 붙들려 운디드니 개천 옆에 있던 군 초소로 끌려갔다. 그 날 밤늦게는 제기병 연대의 나머지 병력도 도착하여 초소 주위에는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십 수년 전 카스터가 지휘하던 기병연대는 지금은

퍼시스(James W. Forsyth) 대령이 연대장을 맡고 있었다. 1868년 9월에 있었던 비처 섬(Beecher Island) 전투에서 매부리코를 죽인 퍼시스 수색대를 창설했던 사람은 다른 퍼시스(George Alexander Forsyth)이다.

다음날 아침 인디언들을 한 곳에 모은 다음 무장해제를 실시했다. 자신해서 내놓은 총이 몇 자루 되지 않자 군인들이 천막 속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도 별로 나오는 것이 없었다. 다음으로 미군들은 인디언의 몸을 수색해서 총 두 자루를 찾아냈다. 그 중 하나는 검은 코요테(Black Coyote)라는 이름의 젊은 전사의 것이었다. 블랙 코요테는 청력 장애인이었다. 그는 총을 높이 들면서 비싼 돈을 주고 산 자기의 총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미군이 인디언 전사에게 달려들어 총을 뺏으려던 순간 총소리가 났다. 그 때부터 미군은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인디언을 향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어린이나 부녀자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인디언들을 죽였다. 14년 전 카스터가 당했던 수모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대참극이었다. 이 광란은 또 하나의 인종청소 성격의 대 학살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350명의 인디언 중에서 거의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도 25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미군 측의 사격실수나 유탄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된다. 이로써 거의 40년에 걸친 평원 인디언들의 유혈 투쟁은 그 막을 내렸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3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진부공未珍夫公은 아시공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삼엽공주이니, 곧 법흥대왕의 딸이다. 공주는 꿈에 백학을 보고 공을 낳았다. 공의 모습이 아름답고 재주가 많아 법흥대왕이 사랑했다. 비대공比臺公 등과 더불어 궁중에서 자랐다. 그 때 법흥대왕의 옥진공주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여 비대공을 태자로 세우려고 했으나, 지소태후가 정통이 즉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정통난입正統難立), 삼엽과 더불어 아시공이 태후를 지지했다. 이로써 태후가 삼엽과 미진부공을 사랑했다. 태후가 정치를 맡아 하게 되자 공을 폐신嬖臣으로 삼았는데, 그때 공의 나이가 16살로 능히 태후의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미진부공의 아버지 아시공은 마복칠성 중의 한명이다. 마복칠성은 당시 신라 왕실에서 왕자의 자리에 버금가는 비처왕(소지왕)의 마복자 7명을 일컫는다. 마복자는 임신한 부인이 왕의 은총을 받은 후 낳은 아들을 말한다. 현대의 성의식이나 성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 신라의 마복자는 왕조만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었던 풍습이다. 아시공의 아버지는 선모이고 어머니

는 보혜이다. 미진부공의 어머니 삼엽공주는 법흥왕의 딸이며, 삼엽의 어머니는 법흥왕의 후궁 벽화부인이다.

벽화부인은 날이군(현 경북 영주)에서 살던 파로(당시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의 수장으로 추정)의 딸이었는데, 소지왕이 변방 날이군으로 순시를 갔다가 그녀의 미색에 반해 그 후 몇 차례 평민으로 변복을 하고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었다. 경주에서 영주까지 왕립을 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보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만큼 사모했기에 결국 소지왕은 당대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 벽화를 경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다. 벽화가 입궁한 시기가 500년 무렵으로 보이며 그의 어머니도 함께 와서 소지왕의 후궁(벽화부인)이 되었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500년 11월에 소지왕이 죽고(혹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지증왕이 즉위했다. 그리고 태자 김원종(후에 법흥왕)은 소지왕의 몇몇 후궁들을 차지했다. 그 중의 하나가 벽화이다. 미진부공의 어머니 삼엽공주가 이 법흥왕과 벽화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후궁 옥진공주, 옥진은 박영실에게 시집갔다가 법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옥진은 1세 풍월주 위화랑과 후처 오도의 딸이다. 이 옥진 또한 절세미인이어서 법흥왕이 그녀의 치마폭을 벗어 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왕자, 비대전군이 태어났다. 법흥왕은 왕후 보도부인으로 부터 적자가 없었다. 동시에 법흥왕이 옥진을 지극히 사랑한지라 비대공으로 태자를 삼아 왕위를 잇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왕실의 분위기는 '지소태후(법흥왕의 적녀)와 임종갈문왕(법흥왕의 동생)의 아들인 삼맥종(진흥왕)에게로 가는 것이 대의大義' 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특히 지소태후는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 삼맥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옥진의 아버지 위화랑, 이복자매인 삼엽공주 부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자신은 섭정을 자리를 꿰어찼다.

계속되는 화랑세기 대역(이종욱), [이에 앞서 삼산공의 딸인 준정俊貞이 원화源花가 되었는데 많은 낭도를 두었다. 그 때 법흥왕의 딸인 남모공주南毛公主는, 곧 백제 보과공주

의 소생으로 또한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미진부공과 더불어 도탑게 사랑했다. 태후가 공을 사랑하여 남모를 도와 원화로 삼고자 했다. 이에 앞서 법흥대왕이 옥진공주의 사부私夫人 영실공을 용양군龍陽君으로 삼아 총애를 하며 높은 위에 있게 하고, 준정에게 원화를 물려나도록 했다.]

화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源花'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화랑도의 전신, 즉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원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화랑세기 서문에도 나오듯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써 원화를 삼게 되었다.” 원화제도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서 양성된 인재는 국가 기관에서 선발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내 떡,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 (3)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V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힐러리와 트럼프의 팽팽한 자기 자랑 대결로 미국의 선거열풍이 후끈거리고 있다. 필자는 정치판을 논할 만한 지식이 없기에, 대신 지난 번 칼럼 트럼프의 나르시즘에 이어 힐러리의 나르시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힐러리의 나르시즘을 파악하기 전, 나르시즘의 두 형태 'Grandiose Narcissism(과장된 나르시즘)'과 'Vulnerable narcissism(민감한 나르시즘)'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설명한다.

'과장된 나르시즘'은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을 우선으로 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시크한 매력에 사람들은 빠질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와 지길 원하며, 때론 그들을 우상화 시키기도 한다. 그들의 멋있는 매력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 중,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재빨리 파악할 줄 아는 뛰어난 직감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카리스마는 강인함과 단단함으로 넘친다. 만약, 이들에게 슬픔과 걱정이 생긴다면, 분노와 프라이드로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 할 것이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가짜보다 더 진짜같은 행복한 모습,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 남을 자상히 배려하는 모습을 연기할 줄 안다. 배우보다 더 뛰어난 연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민감한 나르시즘'은 밖으로는 조용하고 조심스럽지만, 안으로는 자기를 지키려는 강한 자존심이 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성향이 있다. 민감한 나르시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처럼 떼를 쓰며 울거나, 뽀루뽀해지면서 빠지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쩡얼거리기도 한다. 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작(manipulation)하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만다. 자신의 관리와 자격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모험과 윤리에 어긋난 결정과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권리나 업적에 상처를 입히면, 민감한 나르시스트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자신보다 너무 높은 이상적 자

상에 맞추려 하다 보니,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만큼 강하지만, 자존감은 약하다. 따라서 쉽게 상처받고 위협을 받는다. '민감한 나르시즘' 성향이 정도를 지나치면 '나르시스트 성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로 전이되기 쉽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업적이 성취되어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짜릿한 탐닉의 중독성을 갖게된다. 빛나는 성공을 한 정치가, 기업가, 연예인들 중, 그렇게 성공을 하고도 더 최고가 되기 위해 끝없이 더 높은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약물중독의 악순환(Vicious Cycle)과 같다.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을 쓰면, 신경계에서 내성(Tolerance)과 신체 의존성(Dependence)이 생긴다. 즉, 처음 약을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황홀함을 느끼는 고정된 용량으로는 그 효과가 계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효과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약물의 양이 점점 커져야 한다. 약을 줄이거나 사용을 안하면 생기는 금단현상의 집착과 강박성을 참는것은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중독을 벗어나려면 살을 깎는 각오가 없이는 힘들다.

이기적인 나르시스트는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 자신의 성공이 주는 기쁨을 중독에 까지 빠지지 않게 자기 관리를 아주 잘 한다. 만약, 이 조절이 잘못하면, 결국 그들의 성공이 주는 기쁨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편안히 쉬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항상 선호한다. 이 대상이 부인, 남편, 절친한 친구, 애인, 어머니일 수 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대상 앞에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민감한 나르시즘을 나타낸다. 자신의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계 기능에 교감신경계(SNS:sympathetic nervous system)와 부교감신경계(PSNS: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과정이 있다. 긴장을 하거나 집중을 하면 SNS이 올라가고, 일

이 끝난 후 긴장을 푸는 과정은 PSNS이 맡는다. 이기적인 나르시스트는 일에 대한 집중과 휴식의 원리를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두가지 양면의 생을 피할수가 없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난 힐러리는 '과장된 나르시즘'에 가깝다.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밖에서는 아주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가, 집에오면 자신의 가족에게 어린이처럼 변하는 아버지의 변덕이 위선으로 느껴져 힘들어 했던 클라이언트가 있었다. 이 클라이언트의 아버지처럼, 밖에 있는 힐러리는 과감하고 강인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집안에 온 힐러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지는 모르는 일이다.

힐러리와 그녀의 어머니 인 도로시 하웰 로담(Dorothy Howell Rodham)에게는 수 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한계를 깨부수는 오독이의 모습이 같은 점이 있다. 도로시의 어린시절은 매우 불행했다. 도로시부모의 계속되었던 폭력적인 싸움, 잦은 이사로 수없이 해야했던 전학, 경제가 힘들어 겪어야 했던 가난의 아픔이 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8살 되던 해에 이혼을 했고, 그 후 그녀는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조부모는 너무나 엄격하고,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에게 관심이 없었다. 할로인에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그 별로 일년 간 학교 외에는 집밖을 못 나가는 벌을 받을 정도였다. 14살, 가정부 자리를 얻어 조부모를 떠났고, 유모, 요리사를 전전하며 자립을 하며 스스로 고등학교를 마쳤다. 고등학교 졸업후,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세일즈 맨이었던 힐러리의 아버지 휴 로담(Hugh Ellsworth Rodham)을 만났다. 그녀의 나이 18살 이였고, 아버지는 8살 연상 26살이였다. 도로시가 23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다. 결혼 후, 도로시는 그녀의 생모와 관계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재혼 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결혼 5년 후, 도로시 로담이 28살 되던

해, 힐러리가 태어났다. 그후, 힐러리 남동생, 휴(Hugh Edwin Rodham)와 토니(Tony Rodham)가 태어났다.

아버지 휴 로담은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 탓에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유별난 사람이였다. 휴 로담은 열등감 때문에 일부러 더 심술궂게 행동하는 사람들처럼 모난 성격의 소유자였다. 힐러리를 포함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괴팍하고 우울한 성향을 참아내야 했고, 궁색하리만치 검소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또한 그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퍼붓는 욕설과 모욕을 들어야 했다. 그는 비록 무자비하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인물이였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끈끈한 가족애와 그것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그 누구보다 힐러리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했던 것 같다. 1975년 남편인 빌 클린턴과 아카폴코로 신혼 여행을 갔을 때, 그녀는 부모와 남동생 휴와 토니도 데려갈 정도였다.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는 1930년대 비엔나에서 아동 분석가를 시작으로 정신 분석학적 측면에서의 아동 심리를 개념화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유아의 정신 내적 경험을 생물학적 용어인 공생(Symbiosis)의 관계로 표현했다. 이 관계는 인지적 및 정서적 수준에서 유아는 어머니와 나는 '하나(Oneness)라는 융합'의 경험, 이 마법적인 관계를 통해 나르시즘의 최상의 환희를 느끼게 한다. '하나(Oneness)라는 융합'을 어떻게 잘 분리시키는가는 건강한 자아의 지반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공생관계의 환각(symbiotic illusion)'이 생기고, 이 관계가 할머니-어머니-딸의 삼대 관계에 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Halberstadt-Freud, H.C.,1989). 다음 칼럼을 통해 힐러리와 어머니와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영향을 준 그녀의 나르시즘을 살펴보고자 하자.

Each of your precious votes ignites Korea to move forward

재외국민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한 표

대한민국을 달리게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3.30~4.4

기간 총 6일 이내 / 매일 08:00~17:00
Maximum 6 days, not staggered / Daily 08:00-17:00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Persons who registered as overseas absentees or overseas voters)
준비물 Requirements	사본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주국의 신분기 증명서 등) (ID Card with Photo, passport, resident card, public official ID card, driver's license, or a certificate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siding country)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주국의 신분기 증명서 등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Only one of the above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투표장소·기간 Voting Place & Voting Period	주보스턴총영사관 민원실 (300 Washington Street, 2nd Fl. Newton, MA 02458) 2016.3.30.(수) ~ 2016.4.4.(월), 주말 포함 08:00~17:00

투표소 운영시간·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www.nec.gov.kr, 외교부 홈페이지 mof.go.kr,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For more information, access www.nec.gov.kr, mof.go.kr or the website of embassy.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4) 과정(Process)의 중요성

2015년 미국 대학 풋볼 챔피언은 앨라배마 대학입니다. 풋볼 챔피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학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은 닉 세이번(Nick Saban) 코치와 함께 2009, 2011, 2012, 2015년 4번을 우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은근히 '주식 대박' 을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권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하기가 복권이라도 사는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앨라배마 대학이 미국 대학 챔피언이 된 이유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놀라운 작전 때문에 챔피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학 수석 합격자가 흔히 말하는 '학교 공부' 에 충실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닉 세이번 코치는 선수들에게 "과정(process)" 을 항상 강조하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설명합니다. 지구 위에 사는 동식물 중 지

능이 가장 발달한 인간은 항상 과거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생각해도 현재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즉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닉 세이번 코치는 경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점수를 보여주는 전광판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공을 잡은 한순간 한순간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순간과 순간이 이어져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업적을 성취하는가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말한다."

"우리는 챔피언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챔피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주식투자도 비슷합니다. 주식 대박을 기대하지 않고 적은 돈이지만 경비가 저렴한 종목을 이용하여 꾸준히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투자하면 같은 액수지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제대로 하는 투자는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192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주식시장(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입니다. 수익률 10%란 투자한 돈이 7.2년마다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50만 불 투자해서 14.4년 후면 200만 불로 증가합니다. 투자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를 맞보는 투자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미국 채권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5.5%입니다.

콜린 파워(Colin Powell)은 미국 전 국무장관을 역임했으며 4성 장군으로 군에서 은퇴했습니다. 젊은 소대장 시절에 받았던 최고의 충고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새파란 소대장이 자대배치를 받았습니. 이 소대장의 희망은 꼭 별을 다는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교휴게실에서 대장 계급장을 단 나이가 지긋한 장군을 젊은 소대장이 발견했습니다. 소대장은 반가운 마음에 장군 옆에 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4성 장군이 될 수 있나요?" 장군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소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하고 청렴한 마음과 건강한 몸

을 유지해야 한다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네. 또한, 전쟁 중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밖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고 항상 리더(leader)의 마음을 간직해야 하네." 젊은 장교는 이러한 충고에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좋은 충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면 장군이 되는 것입니까?" "노우(No)" 라고 장군은 대답하며 "지금 이 순간 훌륭한 소대장이 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장군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를 선택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물론 내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발표하는지?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지? '과정(process)' 이 투명하고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되는지? 등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기본적인 재정계획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제대로 하는 투자는 결국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4)

지난 주에 이어, 테마별로 연표를 정리해두면 수월한 주제 중에 Politics & Power라는 테마가 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논쟁이라든가, 정치사상들의 핵심 원리, 그리고 정당 및 정치 시스템과 논쟁의 발전 과정 등을 다루는 영역이다. Politics & Power와 관련한 연표는 특히 유용한데 정당 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주요 대통령 선거 및 논쟁점 등을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미국사의 흐름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요 대통령 선거의 연표다

- Election of 1800: Thomas Jefferson이 당선되었다. 자칭 "Revolution of 1800" 이라고 칭한 이 선거는 연방주의당 (Federalist Party)으로부터 제퍼슨이 이끄는 민주공화당 (Democratic Republican Party)으로의 정권 교체가 발생한 선거다.

- Election of 1824: 일명 "화해의 시대" (Era of Good Feelings)가 막내리게 되는 선거로, 네 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각자 출신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일반 선거 (popular vote)의 득표수는 앤드류 잭슨이 가장 앞섰으나, 선거인단의 유효표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이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헌법 12조) 하원 대변인 출신의 헨리 클레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여 JQ Adams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cor-

rupt bargain)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이후 민주당과 휘그당의 분화가 발생하는 계기였다.

- Election of 1840: 일명 통나무 집 선거. 휘그당은 현직 마틴 밴뷰렌 (민주당) 대통령 재임기의 경제 공황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휘그당 후보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노령을 공격했다. 해리슨은 실상 매우 부유한 계층 출신이었지만 "통나무집에서 애플 사이더를 마시며 늙을 것"이라는 식으로 서민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당선된다. 별다른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이미지로 선거에 승리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겠다.

- Election of 1844: 당시는 영토 확장과 함께 미국인들의 서부 이주를 정당화하는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의 이데올로기가 자리잡아가던 시기. 그러나 새로운 주가 탄생한다는 것은 노예주를 늘려도 될 것인지의 논쟁을 예고할 수 있다. 휘그당의 후보였던 헨리 클레이는 관세 인상, 국내 (특히 서부) 기반 시설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아메리칸 시스템을 내세웠고, 민주당의 제임스 포크는 텍사스를 합병하고 오레곤주를 영토화하는 확장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포크의 승리는 영토 확장 이데올로기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결과적으로는 멕시코 전쟁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 Election of 1848: 승자는 휘그당의 재커리 테일러. 마틴 밴뷰렌이 (노예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컸던 남부가 주로 지지했던)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노예제 확장에 반대하는 자유

토지당 (Free Soilers)의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당시 가장 커다란 정치적 이슈였던 노예제 문제에 있어 테일러 대통령의 입장은 노예제 존속/확산을 찬성하는 민주당 주류와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휘그당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가져온 선거다.

- Election of 1860: 19세기 중반 휘그당, 자유토지당, 미국당 등 이질적이지만 적어도 노예제가 준주 확산 반대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정치인들이 공화당을 결성했다. 신생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링컨이 남부 노예주 중 단 한주의 지지도 얻지 못했으나 인구가, 따라서 선거인단수가 많았던 북부 자유주들과 캘리포니아 등의 지지만으로 당선되었다. 결국 연방시스템에서 정치적 무력감을 안게 된 남부 주들은 하나씩 연방에서 탈퇴하여 남부연방 (Confederate State of America)을 결성한다. 즉 1860년 대선은 남북전쟁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 Election of 1876: 민주당의 사무엘 틸든과 공화당의 헤이스가 경합했다. 대중투표의 승자는 틸든이었으나 선거인단 투표의 최소 충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하원으로 넘겨진 이 선거에서 헤이스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대신, 재건을 위해 남부에 보내진 연방군대를 철수하는 타협이 양당간에 만들어진다. 재건 시대가 갑작스럽게 막내리게 된 이유를 제공한 선거였다.

- Election of 1896 - 공화당 매킨리의 승리는 금본위제의 자유은화주조운동에 대한 승리이자 인민당 (Populist movement)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선거였다.

- Election of 1912 - 공화당의 개혁파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공화당 주류의 태프트와 분열하면서 개혁당 (Progressive Party)을 창당했다. 공화당의 분열은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윌슨에게 대권을 넘기는 계기가 되었다.

- Election of 1920 - 수정헌법 19조 이후의 처음 선거였다. 공화당의 후보였던 하딩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Returning to Normalcy)" 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주의 (Progressivism)와 1차대전 참전 등을 비판했다. 공화당의 시대, 그리고 부자감세와 관세 인상 등 낙수효과 경제론으로 대변되는 1920년대의 시작이었다.

- Election of 1932 - 후버 대통령 (공화당) 당시 시작된 긴 경기침체의 대공황은 공화당 정치인들조차도 자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선택하게 했다. 뉴딜의 시작이었다.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렙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2016년 H-1B Filing Tips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봐도 올해도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쿼터가 소진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이민국이 신청 첫 주 적어도 6만5천개의 신청서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는 LCA 신청이 벌써부터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년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수의 사람들이 이번 4월 H-1B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결국 H-1B 를 받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일?

무조건 신청서가 4월1일에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H-1B 비자에 대한 추첨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쿼터가 다 차기 전까지 선착순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매년 이민국은 신청서

의 숫자와 상관없이 4월1일부터 5일간 (Business day) 신청서를 받습니다. 5일이 지나고도 쿼터가 소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5일간 받은 신청서의 수가 쿼터보다 많게 되면 바로 그해 H-1B 신청접수를 종료하고 5일간 접수된 서류에 대한 추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4월1일부터 5일안에 (within 5 business days) 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간혹 그래도 4월1일에 접수해야만 추첨에도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급행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먼저, 서류심사의 시작일이 5월16일 까지 지연됩니다. 일반적으로 급행신청은 최대 15일 안에 서류심사에서 결정까지 해준다는 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H-1B에 한해서 이 15일이 서류접수날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월16일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행신청을 해도 결과를 5월 중순 또는 6월 초나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항간에 급행신청은 신청료를 더 내게 되니 추첨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제 개인적은 경험 (제 경험이 모든 H-1B 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으로는 급행신청으로 한 H-1B 신청서의 추첨 당첨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신청료

H-1B 신청에는 여러가지 신청료들이 있습니다. 한 체크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계속해서 각 신청료들을 별도의 체크로 (separate checks)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하고 체크발행 날짜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

막으로 이민국에 내는 모든 신청서는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공식으로 접수됐을 때만 이민국으로 지불됩니다. 단지 이민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서가 추첨에서 뽑히지 않았다면 모든 신청서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전공과 하는 일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정말 H-1B가 안되는건가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 전공으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법으로 어떤 전공은 H-1B가 되고 어떤 전공은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 불가능한 전공은 없습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H-1B를 받기 위한 전공 관련 조건은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이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회계학을 전공하고 회계사가 되는 것,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은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쉬운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전공과 하는 일이 이렇게 명확하게 연관되는 경우보다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변호사들에게 틀에 박힌 생각만 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호텔경영 학사를 나왔으니 최고급 호텔의 프론트나 예약실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텔의 대부분 직종이 매니저 급이 아닌 이상 이민국 입장에서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사를 갖 졸업한 학생이 매니저 급으로 취직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경우,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고객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하면서 변호사의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의 케이스들 중 하나에서 고객은 호텔경영학과를 나와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면서 호텔 회계 업무를 보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민법 상 회계사 (Accountant)는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2015-2016 회계 연도 1분기 H-1B 비자 승인 직종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있는 직책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CPA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 호텔 회계 관련 수업을 몇 가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회계 업무는 호텔 사업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호텔경영학과가 적합하고 관련 회계학 수업을 들었다는 논리로 매니저급이 아닌 호텔 신입 사원임에도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이 한국계 대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기업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시로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는 해당 고객의 업무 중 일부가 회사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수치를 계산하는 일이었기에 회사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Management Analyst로 H-1B를 신청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전공이 안 맞아서 H-1B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어서서 의기소침해 있으

시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두드리면, 문은 열리는 법입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INADA 뉴욕전시장 오픈기념 대세일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기간: 2월 6일 ~ 3월 31일



이나다 Dream Wave 구매하시는 분에게
Body Slimmer(\$1,200)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마사지체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의료기입니다



선착순 10명

Body Slimmer (\$1,200)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미동부 전지역 무료 배송

5년 무상 워런티



미동부 공식 대리점

베델전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뉴욕지점 코리아빌리지 1층 201-417-5350

베델전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한남체인점 1888-809-1167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H TRONS 201-417-5350 / 201-941-0024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셈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셈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프시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1.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I class
새로운 문제유형을 완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일정)
10:00-1:00 강의
(Evidence-Based Reading, Writing, Math
without a calculator, Math with a calculator)
1:00-2:00 점심식사
2:00-5:00 문제풀이 연습
2. SAT II Subject test classes
Math II C, Biology, Chemistry, Physics
3. 5월 AP 대비 전과목 수업가능

4. 초, 중학생을 위한 writing class
5-8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규모 class로 운영됩니다.
(Goals)
• Improve writing skills
(Six traits: Ideas and Content, Organization,
Word Choice,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and Voice).
•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 Prepare for school writing assignments
기간: 4.16(토)~23(토) 8일간
시간: 1:00-3:00

Narrative Writing, Expository Writing,
Technical Writing/Vocabulary,
Persuasive Writing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